

이슈
보고서

2021

17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이소양

머리말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를 유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200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중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경우 사업 규모나 순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으며,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이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에 관심 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중국 보험시장은 1992년부터 대외개방되었으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원 등을 통해 중국 보험산업에 대한 부분적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일부 외국 보험회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본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2021년 11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보험산업 개황	2
1. 보험산업 위상	2
2. 보험산업 현황	7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15
II. 보험시장 개방	19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	19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21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27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	28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30
III. 보험요율과 상품	32
1. 보험요율	32
2. 보험상품	41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46
IV. 판매채널	48
1. 판매채널 유형	48
2. 판매채널 현황	58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60
V. 자산운용	65
1. 자산운용 규제	65
2. 자산운용 현황	68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72



목 차

Ⅵ. 소비자보호	73
1. 계약자 보호제도	73
2. 보험정보 공시제도	78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	80
4. 감독당국의 최근 행보	82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85
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89
1. 중국 사업 현황	89
2. 성공사례	92
3. 시사점	101
Ⅷ. 맺음말	104
• 참고문헌	107

표 차례

〈표 I-1〉 주요국 보험회사의 세계 25위권 진입 현황	5
〈표 I-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 연도별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8
〈표 I-3〉 생명보험회사 연도별 개수	9
〈표 I-4〉 2020년 10대 생명보험회사(수입보험료 기준)	10
〈표 I-5〉 손해보험회사 연도별 개수	11
〈표 I-6〉 2020년 10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 기준)	11
〈표 I-7〉 지역별 생명보험 성장 속도 순위	12
〈표 I-8〉 지역별 손해보험 성장 속도 순위	14
〈표 I-9〉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집중도 연도별 추이	16
〈표 I-10〉 대형 보험회사 순이익 및 비중(2019년 기준)	17
〈표 I-11〉 보험밀도 및 침투도	18
〈표 II-1〉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의 주요 내용	20
〈표 II-2〉 『상하이 외자보험회사 잠정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22
〈표 II-3〉 외자보험회사 명단(1992~2000년)	23
〈표 II-4〉 WTO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	24
〈표 II-5〉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의 주요 내용	25
〈표 II-6〉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25
〈표 II-7〉 외자보험회사 명단(2001~2017년)	26
〈표 III-1〉 보통형 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35
〈표 III-2〉 유배당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36
〈표 III-3〉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개발 요구조건	38
〈표 III-4〉 자동차 상업보험 할인할증 범위	39
〈표 III-5〉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혁 내용	40
〈표 III-6〉 생명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42
〈표 III-7〉 손해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43
〈표 III-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44
〈표 III-9〉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45
〈표 IV-1〉 T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50
〈표 IV-2〉 C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51
〈표 IV-3〉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5

〈표 IV-4〉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5
〈표 IV-5〉 C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6
〈표 IV-6〉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7
〈표 IV-7〉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7
〈표 IV-8〉 보험중개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58
〈표 IV-9〉 생명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59
〈표 IV-10〉 손해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59
〈표 IV-11〉 생명보험회사 상위 4개사 보험설계사 수	62
〈표 IV-12〉 중국 IT회사들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현황	64
〈표 V-1〉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유형별 투자상한	67
〈표 V-2〉 보험회사 총자산 및 운용자산 변화 추이	69
〈표 V-3〉 보험회사 투자자산 유형별 변화 추이	70
〈표 VI-1〉 보험보장기금 제도 개황	74
〈표 VI-2〉 보험보장기금 보상 내용	76
〈표 VI-3〉 보험정보 공시내용	80
〈표 VI-4〉 보험민원 건수 변화 추이	86
〈표 VI-5〉 보험회사의 정보공시 문제점	87
〈표 VII-1〉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90
〈표 VII-2〉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	91
〈표 VII-3〉 흑자 외자보험회사 개수	91
〈표 VII-4〉 AIA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93
〈표 VII-5〉 CIGNA-CMB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97
〈표 VII-6〉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99

그림 차례

〈그림 I-1〉 주요국 보험시장의 규모	2
〈그림 I-2〉 주요국 보험시장의 세계 비중	3
〈그림 I-3〉 주요국 보험시장의 CAGR(2001~2019년)	4
〈그림 I-4〉 주요국 보험시장의 연도별 성장률(2001~2019년)	4
〈그림 I-5〉 2019년 4/4분기 주요국 인슈어테크 투자 금액 및 건수 비중	6
〈그림 II-1〉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27
〈그림 IV-1〉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의 보험설계사채널 초년도 보험료	60
〈그림 IV-2〉 중국 보험설계사 수 및 증가율	61
〈그림 V-1〉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 변화 추이	71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I

보험산업 개황

1. 보험산업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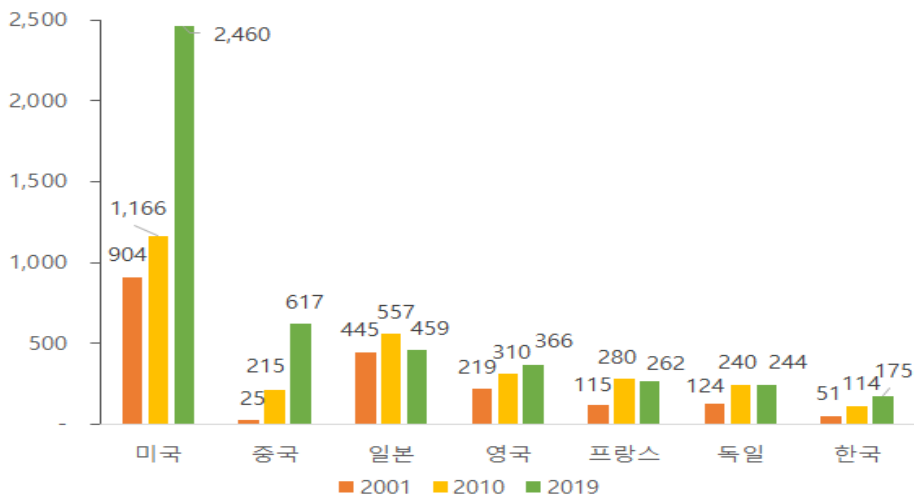
가. 시장 규모

○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임

- 미국(1위)은 2.5조 달러, 일본(3위)과 영국(4위)은 3,000~5,000억 달러, 프랑스(5위)와 독일(6위)은 2,000~3,000억 달러, 한국(7위)은 2,000억 달러 이하 수준임
- 2001년 전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1.1%에 불과했던 중국 보험시장이 2019년에 9.8%로 높아지고, 같은 기간에 일본 보험시장은 18.4%에서 7.3%로 낮아져 2019년 현재 중국 보험시장은 일본 보험시장의 1.4배에 상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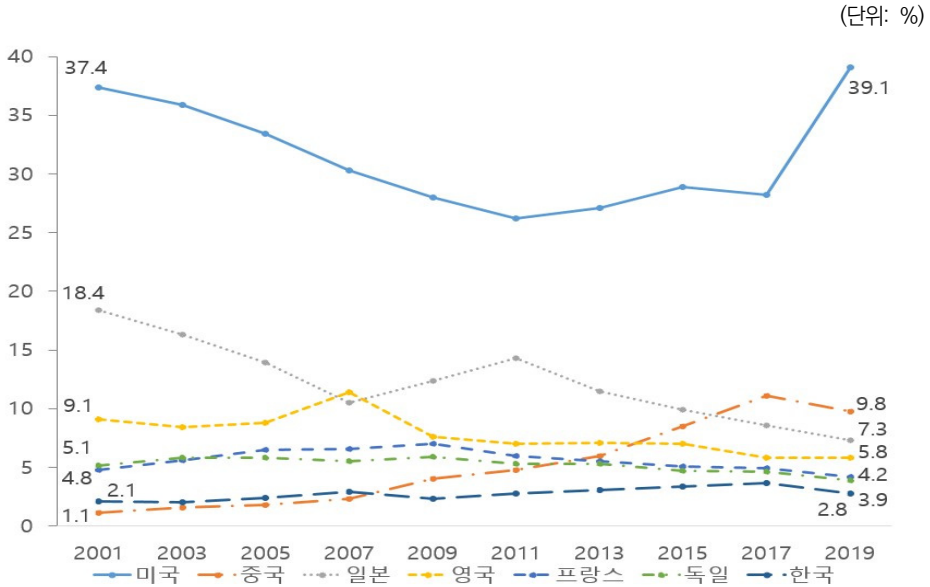
〈그림 I-1〉 주요국 보험시장의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wiss Re(2002, 2011, 2020)

〈그림 I-2〉 주요국 보험시장의 세계 비중



자료: Swiss Re(2002, 2004, 2006, 2008, 2010, 2014, 2016, 201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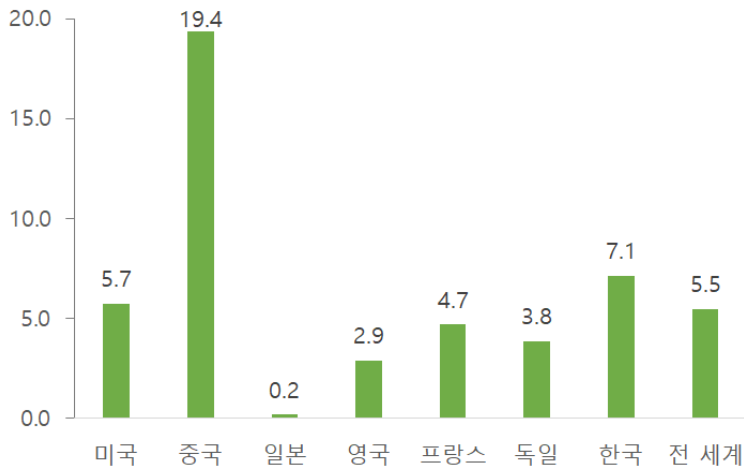
나. 성장 속도

○ 중국 보험시장은 2001년부터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를 유지함

- 2001~2019년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19.4% 성장하여 세계 평균 성장률(5.5%)의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 같은 기간에 미국 5.7%, 일본 0.2%, 영국 2.9%, 프랑스 4.7%, 독일 3.8%, 한국 7.1% 등과 비교해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지난 40여 년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보험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중국은 GDP 기준으로 2010년을 시작으로 일본을 능가하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19년 현재 14조 달러로 미국의 70%를 넘었음
 - 1978년 100달러에 불과했던 중국 1인당 GDP는 2019년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고 3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1/3 수준에 근접함

〈그림 I-3〉 주요국 보험시장의 CAGR(2001~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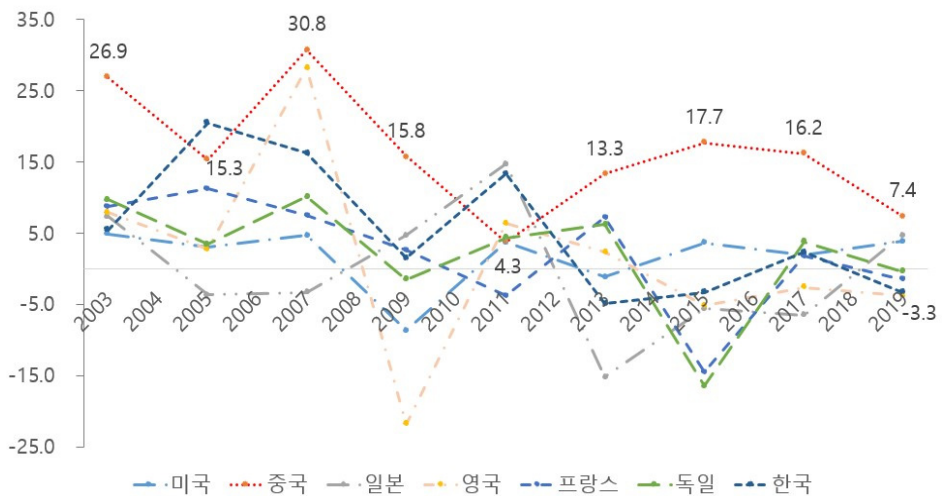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wiss Re(2001~2020)

〈그림 I-4〉 주요국 보험시장의 연도별 성장률(2001~2019년)

(단위: %)



자료: Swiss Re(2001~2020)

다. 보험회사 세계 순위

○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및 자산 기준 세계 25위권에 진입한 중국 보험회사 수는 각각 4개사 및 2개사를 기록함¹⁾

- 미국의 A.M. BEST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5위권에 진입한 중국 보험회사는 2010년에 중국인수보험그룹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 중국평안보험그룹, 중국인민보험그룹 및 중국태평양보험그룹까지 진입함
- 자산 기준으로는 세계 25위권에 진입한 중국 보험회사는 2010년에 중국인수보험그룹에서 2019년에 중국평안보험그룹까지 확대됨
- 향후 중국 보험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보험료 및 자산 기준 세계 25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중국 보험회사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I-1〉 주요국 보험회사의 세계 25위권 진입 현황

(단위: 개 사)

국가	수입보험료 순위 기준		자산 순위 기준	
	2010	2019	2010	2019
미국	7	10	5	5
중국	1	4	1	2
일본	7	3	5	6
영국	2	1	3	3
프랑스	2	2	3	3
독일	2	2	2	1
이탈리아	1	1	1	1
인도	1	1	1	1
네덜란드	1	0	2	1
스위스	1	1	1	1
캐나다	0	0	1	1

자료: A.M. BEST(2012); A.M. BEST(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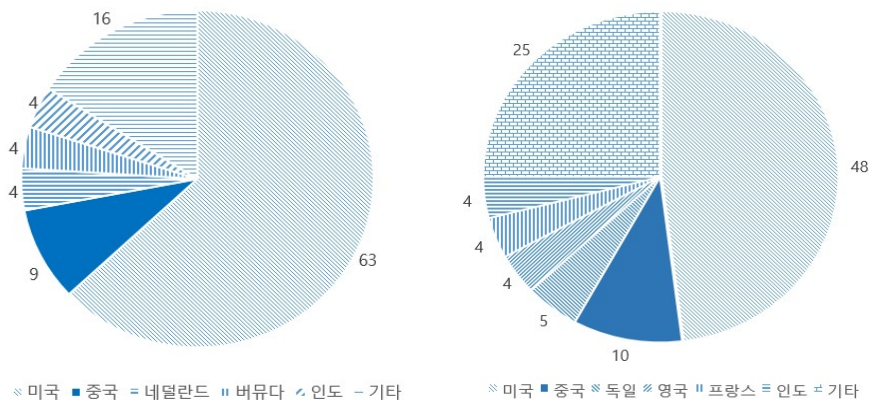
1) A.M. BEST(2012); A.M. BEST(2021)

라. 인슈어테크

-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슈어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 IT회사들의 보험업 진출 및 보험회사의 IT 기술 활용 확대로 중국 인슈어테크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중국의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보험업에 진입하여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알리바바 및 텐센트는 보험판매채널과 보험회사 자격 취득을 통해 보험업에 진출했으며, 이들이 보유하거나 투자한 보험회사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의 온라인채널 전문보험회사인 중안보험회사는 혁신적인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슈어테크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음
 - 중안보험회사는 2013년에 중국평안보험회사, 알리바바 및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서 설립됐으며 2020년에 “Top 100 Insurtech Firms 2020” TOP 3에 진입함
 - 2019년 4/4분기 현재 중국은 인슈어테크 투자 금액 및 건수 기준 세계 2위권에 모두 진입함²⁾

〈그림 I-5〉 2019년 4/4분기 주요국 인슈어테크 투자 금액 및 건수 비중

(단위: %)



자료: Equal Ocean(2020); CB Insights(2020)

2) Equal Ocean(2020); CB Insights(2020)

2. 보험산업 현황

가. 수입보험료

1) 생명보험 부문

- 2020년 현재 생명보험시장은 3조 3,329억 위안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73.6%를 차지함
 - 2020년 생명보험시장이 전체 보험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1.8%보다 1.8%p 높아졌는데 이는 손해보험시장의 2.8배에 상당한 수준임
- 2016~2020년 생명보험시장은 연평균 10.6% 성장하여 전체 보험시장 성장률(10.0%)보다 0.7%p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2017년까지 20% 이상을 유지했던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로 2018년에 1.9%로 수직으로 하락함
 - 중국 감독당국은 2016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 『생명보험 계리제도 개선방안』 및 『생명보험 상품개발 관리강화 조치』 등을 발표했으며, 이런 규정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유니버설보험 판매를 축소시켰음
 - 2018년에 부진했던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2019년에 13.8%까지 회복됐지만 2020년에 다시 7.5%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채널 판매실적이 위축됐기 때문임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1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보험설계사와 같은 대면채널 판매실적은 정부의 도시봉쇄 조치 시행으로 크게 위축됨

2) 손해보험 부문

- 2020년 현재 손해보험시장은 1조 1,929억 위안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26.4%를 차지함
 - 2020년 손해보험시장이 전체 보험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8.2%보다 1.8%p 낮아졌음

○ 2016~2020년 손해보험시장은 연평균 8.1% 성장하여 전체 보험시장 성장률(10.0%)보다 1.8%p 낮은 성장률에 그침

-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은 2016년 9.1%에서 2017년 12.7%까지 상승했지만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로 2020년에 2.4%로 하락함
 -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경기 둔화 및 자동차판매 지원정책 종료로 2017년 2,888만 대에서 2020년 2,531만 대까지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최초가입 건수 감소는 2018년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임
 - 2020년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2020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정체에 추가 요인으로 작용함

〈표 I-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 연도별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생명보험	보험료	22,237	26,746	27,246	30,995	33,329	10.6
	증가율	36.5	20.3	1.9	13.8	7.5	-
	비중	71.8	73.1	71.7	72.7	73.6	-
손해보험	보험료	8,724	9,835	10,770	11,649	11,929	8.1
	증가율	9.1	12.7	9.5	8.2	2.4	-
	비중	28.2	26.9	28.3	27.3	26.4	-
전체 보험시장	보험료	30,961	36,581	38,016	42,644	45,258	10.0
	증가율	27.5	18.2	3.9	12.2	6.1	-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나. 보험회사

1) 생명보험 부문

○ 2020년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91개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중자보험회사 63개, 외자보험회사 28개임³⁾

- 중자보험회사 수가 2016년 73개사에서 2020년 91개사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외자보험회사 수는 1개사가 늘어난 28개사로 증가해 2020년 현재 중자보험회사 수는 외자보험회사 수의 2배 이상 수준임
- 외자보험회사의 투자자 국적을 보면 미국계 5개사, 영국계 4개사, 일본계 3개사, 프랑스계 3개사, 대만계 3개사, 독일계 2개사, 한국계 2개사, 남아프리카계 2개사, 캐나다계 1개사, 네덜란드계 1개사, 싱가포르계 1개사 및 이탈리아계 1개사가 있음

〈표 I-3〉 생명보험회사 연도별 개수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자보험회사	27	27	27	28	28
중자보험회사	46	53	59	58	63
합계	73	80	86	86	91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 2019년 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시장 상위 3사는 모두 중자보험회사이며, 이들은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임

- 상위 4~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생명보험회사는 신화생명보험회사, 태강생명보험회사, 화하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중국인민생명보험회사,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및 전해생명보험회사임
- 생명보험시장 상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보험그룹의 보험자회사들임

3) 본 보고서에서 표기한 중자보험회사는 중국 투자자가 설립한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외자보험회사는 외국 투자자가 일부나 전부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I -4〉 2020년 10대 생명보험회사(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순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모회사
1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6,129	19.4	중국인수보험그룹
2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4,761	15.0	중국평안보험그룹
3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2,085	6.6	중국태평양보험그룹
4	신화생명보험회사	1,595	5.0	중앙회금투자주식회사
5	태강생명보험회사	1,497	4.6	태강보험그룹
6	화하생명보험회사	1,471	4.6	명천그룹
7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1,444	4.5	중국태평보험그룹
8	중국인민생명보험회사	962	3.0	중국인민보험그룹
9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820	2.6	중국우정그룹
10	전해생명보험회사	783	2.5	선전시거성화주식회사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2) 손해보험 부문

○ 2020년 말 현재 손해보험회사 88개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중자보험회사 66개, 외자보험회사 22개임

- 중자보험회사 수가 2016년 58개사에서 2020년 66개사로 높아지고, 같은 기간 외자보험회사 수는 22개사에 그쳐 2020년 현재 중자보험회사 수는 외자보험회사 수의 3배에 상당한 수준임
- 외자보험회사의 투자자 국적을 보면 일본계 5개사, 미국계 4개사, 스위스계 3개사, 한국계 3개사, 프랑스계 2개사, 대만계 2개사, 독일계 1개사, 이탈리아계 1개사 및 홍콩계 1개사가 있음

〈표 I-5〉 손해보험회사 연도별 개수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자보험회사	22	22	22	22	22
중자보험회사	58	63	66	66	66
합계	80	85	88	88	88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 2020년 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시장 상위 3사는 모두 중자보험회사이며, 이들은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손해보험회사임

- 상위 4~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손해보험회사는 중국인수손해보험회사, 중화연합손해보험회사, 대지손해보험회사, 양광손해보험회사, 중국태평손해보험회사, 중안온라인손해보험회사 및 중국수출신용보증보험회사임
- 손해보험시장 상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보험그룹의 보험자회사들임

〈표 I-6〉 2020년 10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순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모회사
1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	4,320	31.8	중국인민보험그룹
2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2,859	21.0	중국평안보험그룹
3	중국태평양손해보험회사	1,467	10.8	중국태평양보험그룹
4	중국인수손해보험회사	864	6.4	중국인수보험그룹
5	중화손해보험회사	527	3.9	중화연합보험그룹
6	대지손해보험회사	478	3.5	중국재보험그룹
7	양광손해보험회사	373	2.7	양광보험그룹
8	중국태평손해보험회사	281	2.1	중국태평보험그룹
9	중안온라인손해보험회사	167	1.2	없음
10	중국수출신용보증보험회사	165	1.2	없음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다. 지역별 보험산업 성장 속도

○ 중국 본토는 3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보험산업 성장 속도는 많은 차이를 보임

-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지역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영업지역을 확대하려는 보험회사에 지역별 보험산업 성장 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온라인전문보험회사와 같은 특화보험회사는 적용 예외 대상임

○ 생명보험 성장 속도에 관한 평가결과⁴⁾에 따르면 2019년 광둥, 장쑤 및 산둥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함

-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 다수 지역의 생명보험 성장 속도가 2018년과 비교할 때 변화했지만 광둥, 장쑤 및 산둥은 여전히 3위권에 진입함

〈표 I-7〉 지역별 생명보험 성장 속도 순위

(단위: %)

지역	점유율	표준화	증가율	표준화	성장 정도	표준화	2019년 평가결과		2018년 평가결과	
가중치	50		25		2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광둥	9.81	100.00	19.47	65.31	65.55	70.05	83.84	1	88.06	1
장쑤	9.06	92.35	14.27	47.87	68.14	72.81	76.35	2	86.71	2
산둥	6.74	68.71	9.90	33.21	71.15	76.03	61.66	3	76.09	3
상하이	3.86	39.35	29.81	100.0	63.40	67.75	61.61	4	45.76	27
저장	4.89	49.85	18.58	62.33	69.40	74.16	59.06	5	62.70	6
후베이	4.29	43.73	18.93	63.50	72.78	77.77	57.18	6	61.89	7
허난	6.13	62.49	7.54	25.29	67.85	72.50	55.69	7	72.64	4
쓰촨	5.28	53.82	11.55	38.75	68.69	73.40	54.96	8	65.54	5
베이징	5.23	53.31	18.31	61.42	39.93	42.67	52.68	9	50.91	14
허베이	4.57	46.59	12.34	41.40	69.77	74.56	52.28	10	61.30	8

4) 지역별 생명보험 성장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점유율×가중치 + 증가율×가중치 + 성장 정도×가중치'의 공식을 사용함. 성장 정도는 $1 - (\text{보험밀도} / 10,000 + \text{침투도} / 8\%) / 2$ 의 공식을 사용함. 10,000은 선진국이 평균 보험밀도이며, 8%는 선진국의 평균 침투도임(陈辉 2021)

〈표 I-7〉 계속

지역	점유율	표준화	증가율	표준화	성장 정도	표준화	2019년 평가결과		2018년 평가결과	
후난	3.22	32.82	11.20	37.57	78.09	83.45	46.67	11	59.11	9
선전	3.30	33.64	20.67	69.34	45.61	48.74	46.34	12	50.83	15
닝보	0.68	6.98	25.35	85.04	80.02	85.51	46.10	13	37.47	34
안휘이	2.89	29.46	11.87	39.82	76.99	82.27	45.25	14	58.35	10
충칭	2.25	22.94	15.32	51.39	71.74	76.66	43.48	15	49.46	18
싼시	2.63	26.81	10.35	34.72	71.51	76.42	41.19	16	53.72	11
장시	1.85	18.86	12.00	40.25	79.89	85.37	40.84	17	50.69	16
윈난	1.44	14.68	13.49	45.25	82.23	87.87	40.62	18	46.90	25
푸젠	2.22	22.63	8.27	27.74	78.18	83.54	39.14	19	48.16	21
넝닝구	1.67	17.02	11.13	37.74	74.01	79.09	37.62	20	53.59	12
광시	1.45	14.78	9.32	31.26	83.25	88.96	37.45	21	49.25	19
귀저우	0.86	8.77	11.77	39.48	86.66	92.60	37.40	22	47.32	23
칭다오	1.16	11.82	15.92	53.40	67.29	71.91	37.24	23	47.09	24
톈진	1.50	15.29	12.07	40.49	72.87	77.87	37.24	24	45.46	29
신장	1.38	14.07	11.09	37.20	72.45	77.42	35.69	25	45.02	30
산시	2.12	21.61	7.20	24.15	69.03	73.76	35.28	26	47.37	22
간쑤	0.99	10.09	12.13	40.69	74.11	79.20	35.02	27	43.53	31
려오닝	2.05	20.90	6.63	22.24	71.01	75.88	34.98	28	45.84	26
지린	1.60	16.31	8.56	28.72	72.63	77.62	34.74	29	48.21	20
헤룽장	2.42	24.67	5.44	18.25	63.40	67.75	33.83	30	50.93	13
칭하이	0.18	1.83	11.94	40.05	84.76	90.57	33.57	31	43.41	33
헤난	0.42	4.28	10.46	35.09	78.26	83.63	31.82	32	45.60	28
샤문	0.48	4.89	13.54	45.42	67.18	71.79	31.75	33	34.97	36
다롄	0.92	9.38	11.72	39.32	57.97	61.94	30.00	34	37.09	35
시짱	0.04	0.41	5.34	17.91	93.58	100.0	29.68	35	50.21	17
닝샤	0.42	4.28	8.89	29.82	71.29	76.18	28.64	36	43.53	32

자료: 陈辉(2021)

○ 손해보험 성장 속도에 관한 평가결과⁵⁾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둥, 장쑤 및 저장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함

-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 다수 지역의 손해보험 성장 속도가 변화했지만, 광둥, 장쑤 및 저장은 3위권에 진입함

〈표 I-8〉 지역별 손해보험 성장 속도 순위

(단위: %)

지역	점유율	표준화	증가율	표준화	손해율	표준화	2019년 평가결과		2018년 평가결과	
가중치	50		25		2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광둥	9.19	100.0	15.55	87.61	95.41	41.06	82.17	1	76.53	1
장쑤	8.08	87.92	9.56	53.86	95.21	42.84	68.14	2	68.41	2
저장	6.30	68.55	8.98	50.59	99.49	4.56	48.06	3	61.05	3
허베이	4.92	53.54	8.10	45.63	95.58	39.56	48.06	4	47.08	11
안휘이	3.89	42.33	10.73	60.45	95.47	40.52	46.41	5	44.07	13
후베이	3.42	37.21	13.03	73.41	96.33	32.83	45.17	6	47.37	10
후난	3.41	37.11	11.33	63.83	95.30	42.04	45.02	7	51.96	7
칭해	0.36	3.92	12.80	72.11	88.82	100.0	44.99	8	42.04	16
상하이	4.51	49.08	8.21	46.25	96.41	32.11	44.13	9	56.58	4
산둥	5.69	61.92	7.00	39.44	98.75	11.18	43.61	10	55.06	5
신장	1.93	21.00	17.75	100.0	96.40	32.20	43.55	11	38.26	21
헤난	0.61	6.64	11.11	62.59	89.19	96.69	43.14	12	16.58	33
허난	4.57	49.73	7.01	39.49	96.89	27.82	41.69	13	49.12	9
윈난	2.55	27.75	7.69	43.32	93.44	58.68	39.37	14	39.59	19
쓰촨	4.41	47.99	4.32	24.34	97.42	23.08	35.85	15	53.67	6
귀저우	1.92	20.89	7.39	41.63	93.57	57.51	35.23	16	51.69	8
충칭	1.89	20.57	8.76	49.35	95.04	44.36	33.71	17	35.63	25
장시	2.23	24.27	8.32	46.87	95.65	38.91	33.58	18	45.12	12
베이징	3.90	42.44	7.61	42.87	100.17	-1.52	31.56	19	37.13	22

5) 지역별 손해보험 성장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점유율 표준화 수치×가중치 + 증가율 표준화 수치×가중치 + 손해율 표준화 수치×가중치'의 공식을 이용함(陈辉 2021)

〈표 I-8〉 계속

지역	점유율	표준화	증가율	표준화	손해율	표준화	2019년 평가결과	2018년 평가결과		
푸젠	2.23	24.27	10.45	58.87	98.01	17.80	31.30	20	34.56	26
네이멍구	1.83	19.91	9.55	53.80	96.83	28.35	30.50	21	35.90	24
닝보	1.42	15.45	8.32	46.87	95.31	41.95	29.93	22	33.56	27
려오닝	2.44	26.55	10.23	57.63	99.60	3.58	28.58	23	30.58	29
산시	1.95	21.22	6.77	38.14	96.49	31.40	27.99	24	30.27	30
지린	1.58	17.19	5.99	33.75	95.40	41.14	27.32	25	39.48	20
간쑤	1.18	12.84	9.69	54.59	97.08	26.12	26.60	26	41.32	17
다롄	0.75	8.16	7.59	42.76	95.35	41.59	25.17	27	8.57	36
닝샤	0.59	6.42	6.67	37.58	95.00	44.72	23.79	28	32.54	28
선전	3.11	33.84	5.18	29.18	101.88	-16.82	20.01	29	43.84	14
헤룽장	1.74	18.93	7.66	43.15	101.77	-15.83	16.30	30	36.20	23
톈진	1.31	14.25	5.36	30.20	100.3	-2.68	14.01	31	11.38	34
싼시	1.86	20.24	-5.41	-30.48	95.98	35.96	11.49	32	41.24	18
광시	1.86	20.24	-1.06	-5.97	99.94	0.54	8.76	33	42.39	15
샤문	0.68	7.40	-1.82	-10.25	97.30	24.15	7.17	34	9.18	35
시짱	0.21	2.29	11.74	66.14	105.32	-47.58	5.78	35	22.37	32
칭다오	1.09	11.86	-1.54	-8.68	103.19	-28.53	-3.37	36	26.66	31

자료: 陈辉(2021)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가. 생명보험시장의 큰 변동성

○ 최근 5년간 중국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의 변동성은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2%대에 떨어졌지만 2019년 이전까지 8~13%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반면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2017년 20.3%에서 2018년 1.9%로 급격히 떨어지며 그 이후 상승했지만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나. 손해보험시장의 낮은 경쟁도

○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경쟁도는 높지만,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집중도(HHI)가 1,500 미만인 생명보험시장은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며,⁶⁾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2016년 38.9%에서 2019년 45.8%로 상승한 이후 2020년 41.0%로 크게 하락함
- 시장집중도(HHI)가 1,000에서 1,800 사이에 위치한 손해보험시장은 집중적인 시장이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2016년 63.1%에서 2020년 63.6%로 소폭 상승함

〈표 I-9〉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집중도 연도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명 보험	시장점유율	CR1	19.9	19.7	20.4	20.4	19.4
		CR3	38.9	41.2	45.1	45.8	41.0
		중소형사	61.1	58.8	54.9	54.2	59.0
	허핀달지수(HHI)		786	813	916	921	786
손해 보험	시장점유율	CR1	33.5	33.0	32.9	33.0	31.8
		CR3	63.1	63.3	63.8	63.9	63.6
		중소형사	36.9	36.7	36.2	36.1	36.4
	허핀달지수(HHI)		1,696	1,696	1,705	1,710	1,661

자료: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6)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 내 모든 사업자의 각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함. 미국은 합병 심사 시 시장집중 측정지표로 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HHI가 1,000 미만이면 비집중적인 시장, HHI가 1,000에서 1,800 사이이면 어느 정도 집중적인 시장, HHI가 1,800을 초과하면 고도로 집중적인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HHI의 최고값은 독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의 10,000임

다. 대형 보험회사 쏠림현상

○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물론이고 순이익에도 대형 보험회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6개사의 비중은 62.6%를 차지했으며 순이익 기준 상위 6개사의 비중은 88.2%를 차지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6개사의 비중은 77.0%를 차지했으며 순이익 기준 상위 6개사의 비중은 103.1%를 차지했음
 - 순이익 기준 상위 6개사의 비중은 100%를 초과하는 것은 기타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임

〈표 I-10〉 대형 보험회사 순이익 및 비중(2019년 기준)

(단위: 억 위안, %)

순위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순이익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순이익
1	중국인수생명 보험회사	5,671 (21.1)	590 (25.3)	중국인민손해 보험회사	4,331 (33.0)	249 (45.8)
2	중국평안생명 보험회사	4,939 (18.3)	829 (35.6)	중국평안손해 보험회사	2,710 (20.6)	207 (38.0)
3	중국태평양생 명보험회사	2,125 (7.9)	205 (8.8)	중국태평양손 해보험회사	1,330 (10.1)	59 (10.9)
4	중국태평생명 보험회사	1,412 (5.2)	115 (4.9)	중국인수손해 보험회사	771 (5.9)	23 (4.2)
5	신화생명보험 회사	1,381 (5.1)	146 (6.2)	중국대지손해 보험회사	487 (3.7)	17 (3.1)
6	태강생명보험 회사	1,345 (5.0)	170 (7.3)	중화손해보험 회사	486 (3.7)	6 (1.1)
합계	-	16,873 (62.6)	2,055 (88.1)	-	10,115 (77.0)	561 (103.1)

주: 괄호 안의 내용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라. 높은 성장 잠재력

○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밀도 및 침투도 측면에서 볼 때 보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중국 보험산업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각각 430달러, 4.30%로 세계 평균 보험밀도(818달러) 및 침투도(7.23%)의 50%대 수준에 불과함
 - 2019년 한국 보험산업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각각 3,366달러 및 10.78%임
- 2019년 중국 GDP 총액이 99조 865억 위안이므로 세계 평균 침투도(7.23%)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조 1,640억 위안인데 실제 수입보험료(4조 2,645억 위안)에 비추어서 약 2조 8,995억 위안의 잠재시장이 있음
- 2019년 중국 인구 수가 13.98억 명이므로 만약 세계 평균 밀도(818달러)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7조 8,868억 위안이지만, 실제 수입보험료는 4조 2,645억 위안에 불과하여 약 3조 6,223억 위안의 잠재시장이 있음

〈표 I-11〉 보험밀도 및 침투도

(단위: 달러, %)

구분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침투도	밀도	침투도	밀도	침투도	밀도
세계	2015	346	3.47	277	2.77	621	6.23
	2016	353	3.47	285	2.81	638	6.28
	2017	353	3.33	297	2.80	650	6.13
	2018	370	3.31	312	2.78	682	6.09
	2019	379	3.35	439	3.88	818	7.23
	CAGR	2.3	-0.9	12.2	8.8	7.1	3.8
한국	2015	1,940	7.30	1,094	4.12	3,034	11.42
	2016	2,050	7.37	1,312	4.72	3,362	12.08
	2017	1,999	6.56	1,523	5.00	3,522	11.57
	2018	1,898	6.12	1,567	5.05	3,465	11.16
	2019	1,822	5.84	1,544	4.95	3,366	10.78
	CAGR	-1.6	-5.4	9.0	4.7	2.6	-1.4
중국	2015	153	1.95	128	1.63	280	3.57
	2016	190	2.34	147	1.81	337	4.15
	2017	225	2.68	159	1.89	384	4.57
	2018	221	2.3	185	1.92	406	4.22
	2019	230	2.30	201	2.01	430	4.30
	CAGR	10.7	4.2	11.9	5.4	11.3	4.8

자료: Swiss Re(2016~2020)

II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⁷⁾

가. 개혁·개방 이전의 보험시장(1949~1979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1979년 개혁·개방 시행 전까지 중국 보험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시 중화민국 민영보험회사를 인수·관리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인민보험공사를 설립했으며, 중국인민보험공사는 1958년까지 국내외 보험업무를 영위했다가 1958년 이후 해외보험만을 영위함
 - 당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중국인민은행의 산하 부처임
 - 1958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 시행으로 국내 보험업무를 중단함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61개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신정부의 특권폐지 및 감독강화로 1952년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함
 - 당시 외국 보험회사들은 주로 상하이, 톈진, 광저우, 칭다오 및 충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했음

나. 개혁·개방 이후의 보험시장(1980~1992년)

- 1979년 중국 정부는 국내 보험업무 재개를 결정했으며, 1980~1985년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중국 보험시장을 독점했음
 - 1979년 중국 정부는 해외보험업무만을 영위했던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 보험업무와 재보험업무까지 확대함

7) 腾讯网(2019), “214年! 图说中国保险血泪史”(https://new.qq.com/omn/20190801/20190801A093PD00.html?pc); 中国保险报网(2018), “中国保险业改革开放40年大事记”(http://www.sinoins.com/zt/2018-12/17/content_279054.htm); 保险中介(2013), “建国后的保险历史”(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fw/20130815/153016459818.shtml)

- 당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국무원의 직속 경제기구로 조정됨

○ 1985년 중국 정부는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를 발표했으며, 1986~1991년 신장병단보험공사, 중국평안보험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중국 보험산업은 4개사가 정립한 국면에 진입함

• 1985년 발표된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는 중국 정부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한 최초의 보험산업 감독관리규정임

- 동 잠정조례는 보험회사의 설립, 중국인민보험공사, 지급여력과 보험준비금, 재보험 등과 같은 내용이 있음

〈표 II-1〉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의 주요 내용

규정내용	세부 내용
보험기업의 설립	국가보험관리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보험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것; 보험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있는 것 등
중국인민보험공사	전국에서 원수보험, 재보험을 경영하는 국영기업; 업무범위는 각종 원수보험 및 재보험 업무, 기타 보험기업에게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업무, 국가가 허가한 기타 업무, 법정보험업무, 외화보험업무, 국영, 외자, 중외합자 기업의 보험업무, 국제 재보험업무 등
지급여력과 보험준비금	생명보험기업은 생명보험준비금, 손해보험기업은 미경과책임준비금 적립 필수; 적립 금액은 국가보험기관이 결정
재보험	보험기업의 원수보험업무 30%를 중국인민보험회사에 출재해야 함;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허가한 보험기업을 제외하고 외국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출재하는 것을 금지

• 1986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신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에서 농업보험업무를 위주로 영위하는 신장병단보험공사를 설립함

- 2002년 신장병단보험공사의 명칭은 중화연합손해보험회사로 변경됨

• 1988년과 1991년에 중국인민은행은 각각 중국평안보험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의 설립을 승인함

- 중국평안보험공사는 중국공상은행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중국태평양보험공사는 중국교통은행 주도하에 설립됨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⁸⁾

가. 준비단계(1980~1992년)

- 1980년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했으며, 1992년까지 22개 외국 보험회사는 28개의 대표처를 설립함
 - 외국 보험회사들은 대표처를 통해 중국 보험회사, 정부기관, 각계의 사회조직과 함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험시장 관련 자료를 수집했음
 - 또한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중국 보험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표처를 설립한 미국 Aetna는 8,500만 달러 규모의 안테 중국펀드를 설립해 중국 민영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했음

나. 모색단계(1992~2000년)

1) 감독규정

- 1992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로 보험시장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상하이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을 위해 『상하이 외자보험회사 잠정관리방법』을 발표함
 - 1995~2001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대외개방 시범도시를 상하이에서 광저우, 선전, 충칭, 다롄, 톈진까지 확대함⁹⁾
 - 동 잠정관리방법은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과 등록, 자본금과 업무범위, 업무관리, 투자범위, 청산과 해산, 처벌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려는 외국 보험회사는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5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대표처 설립 3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업무를 따로 영위 시 필요한 등록자본금은 2천만 달러 이상이며 겸영 시 4천만 달러 이상임

8) 澎湃新聞(2018), “新中国外資保險70年金融服務業開放的獨特样本”(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81145)

9) 大洋網(2001), “中國十大領域放寬外商投資限制”(http://money.163.com/editor/010911/010911_60784.html)

- 외국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① 외자회사의 재산과 책임보험, ② 외국인과 중국인의 생명보험, ③ 상기 원수보험의 재보험업무, ④ 기타 감독당국이 허가한 업무가 있음

〈표 II-2〉 『상하이 외자보험회사 잠정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규정내용	세부 내용
설립과 등록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조건: 보험업 경영경력 30년 이상, 전년도 연말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중국 내 대표처 설립 3년 이상 등
자본금과 업무범위	자본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업무 따로 영위 시 2천만 달러 이상, 겸영 시 4천만 달러 이상; 업무범위: 외자회사의 재산과 책임보험, 외국인과 중국인의 생명보험, 상기 원수보험의 재보험업무 및 기타 감독당국이 허가한 업무
업무관리	요율, 사업비율 및 각종 보험약관은 중국인민은행에 결정됨, 보험준비금 적립, 지급여력 관리 등
투자범위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예금,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 해외 외화예금, 회사 지분 등
청산과 해산	중국인민은행이 청산과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
처벌	사업 정지, 중지, 벌금 징수 등

2)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

○ 1992년부터 2001년 중국 WTO 가입까지 8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함

- 1992년 미국 AIA는 상하이에서 최초의 외국 생명보험회사로서 지사를 설립했으며, 1994년 당시 일본 도쿄해상화재는 상하이에서 최초의 외국 손해보험회사로서 지사를 설립함
 - 2008년 일본 도쿄해상화재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독자 외자보험회사 설립 허용으로 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함
- 1996년 캐나다 Manu Life는 중국석유화학회사와 상하이에서 첫 번째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했으며, 1999년 독일 Allianz는 중국 대중보험회사와 상하이에서 첫 번째 유럽계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함
 - 캐나다 Manu Life, 독일 Allianz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각각 합자 생명보험회사 지분의 51%를 보유함

- 이 밖에 16개 국가의 100여 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에 약 200개의 대표처를 설립함

〈표 II-3〉 외자보험회사 명단(1992~2000년)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미국 AIA	1992. 9	100.0%	미국 AIG	1992. 9	100.0%
캐나다 Manu Life	1996. 11	51.0%	일본 도쿄해상화재	1994. 7	100.0%
독일 Allianz	1998. 11	51.0%	-	-	-
프랑스 AXA	1999. 5	51.0%	-	-	-
호주 Bocomm Life	2000. 7	37.5%	-	-	-
영국 Prudential Life	2000. 9	50.0%	-	-	-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 중국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은 중국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1993년 미국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는 각각 3,500만 달러를 출자해 중국평안보험회사 지분의 5.56%를 취득함
- 2000년 스위스 Zurich Financial Services, 세계은행 IFC,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 보험회사는 함께 주당 5.2위안으로 신화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를 취득함
- 2000년 태강생명보험회사는 지분 매각을 통해 스위스 WLP, 싱가포르 GIC, 일본 소프트뱅크와 같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함

다. 시작단계(2001~2017년)

1) 제한사항 및 감독규정

○ 2001년 12월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해 본격적인 보험시장 대외개방을 결정했으나, 중국 보험회사 보호를 위해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 제한사항을 설정했음

-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은 회사설립, 영업지역, 업무범위 및 영업허가에 집중됨

- 회사설립: 손해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허용하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은 50%까지 허용될 계획임
- 영업지역: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지역은 단계적으로 시범도시에서 전국까지 허용될 계획임
- 업무범위: 외자손해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외자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단계적으로 모두 종목의 생명보험까지 확대될 계획임
- 영업허가: 외자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조건으로는 ① WTO 회원국으로 30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보유하고, ② 중국 내 대표처가 2년 이상 존속했으며, ③ 설립 신청 전년도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표 II-4〉 WTO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사항

제한사항	세부 내용
회사설립	가입 즉시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 지분보유는 51%까지 가능하고 2년 내로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형식 제한을 폐지;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 외자 지분 한도는 50%까지 가능
영업지역	WTO 가입 즉시 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전, 포산에서 보험영업이 가능하고 2년 내로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쑤저우, 닝보, 선양, 우한, 톈진까지 허용하며 3년 내로 중국 전국에서 보험영업을 허용
업무범위	WTO 가입 즉시 외자손해보험회사는 지역 제한 없이 일괄보험증권 및 대형 상업보험, 중국 내 외자기업의 재산보험과 관련된 책임보험 및 신용보험의 취급이 가능하고 2년 내로 국내 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자동차강제책임보험, 공공운송차량 및 상업용 차량 운전자와 운송업자 책임보험의 취급이 불허; 외자생명보험회사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생명보험 서비스, 3년 내로 건강보험, 단체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취급이 가능
영업허가	WTO 가입 후 외자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경제성 필요조사와 수량제한을 하지 않지만, 외자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조건으로는 ① WTO 회원국으로 30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보유하고, ② 중국 내 대표처가 2년 이상 존속했으며, ③ 설립신청 전년도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2002년과 2006년에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각각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을 발표함
-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과 등록, 업무범위, 감독관리, 중지와 해산, 법률책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은 외국 보험회사의 대표처 신청과 설립,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II-5〉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의 주요 내용

규정내용	세부 내용
설립과 등록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보험회사: ① 보험업무 경영경력 30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처 설립 2년 이상, ③ 전년도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 ④ 소재 국가나 지역에 건전한 보험감독제도가 있음, ⑤ 소재 국가나 지역의 지급여력 기준 충족, ⑥ 소재 국가나 지역 감독당국의 동의, ⑦ 기타 신중성 조건 등
업무범위	손해보험: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생명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감독당국이 허가할 경우 대규모 상업보험에 관한 보험업무 및 일괄보험증권 영위가 가능; 상기 원수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업 금지 등
감독관리	외자보험회사의 업무상황, 재무상황, 자산운용 상황에 관한 서류, 자료 및 서면보고; 감독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외자보험회사와 관련 회사 간의 금지 거래 활동, 외자보험회사 변경 정보의 서면보고; 외화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의 외환규제 준수
중지와 해산	생명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의 해산 금지, 외자보험회사 해산 절차, 중국 내 채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해외 이전 금지 등
법률책임	무허가 외자보험회사 설립, 불법 보험업무 경영활동, 허가 범위 외의 경영활동 및 기타 위규 경영활동에 대한 처벌 등

〈표 II-6〉 『외국 보험회사 주중 대표처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규정내용	세부 내용
신청과 설립	설립조건: 경영상황이 양호, 경영경력이나 설립시간이 20년 이상, 신청일 전 3년 동안 중대 위법위규 기록이 없음, 감독당국이 요청한 기타 조건 등
감독관리	대표처 명칭, 직원 조건, 대표처 직원의 경영활동 종사 금지, 대표처 및 외국 본사에 관한 정보 제출, 대표처에 대한 점검 등
법률책임	무허가 대표처 설립, 경영활동 종사, 허위 정보 제출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2)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

○ 2001년 WTO 가입 이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기존의 8개사에서 50개사로 크게 상승함

- 외자생명보험회사 개수는 4개사에서 2017년 28개사로 상승했으며 외자손해보험회

사 개수는 4개사에서 22개사로 증가함

- 연도별로 보면 외자생명보험회사 개수는 2009년 28개사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늘어나지 못했으며, 외자손해보험회사 개수는 2011년 22개사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늘어나지 못했음

〈표 II-7〉 외자보험회사 명단(2001~2017년)

생명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손해보험회사	설립 시기	외자 지분
이탈리아 General China	2002. 1	50.0%	미국 Liberty Insurance	2003. 12	100%
네덜란드 BOB-Cardif Life	2002. 11	50.0%	프랑스 AXA Tianping P&C	2004. 12	100%
영국 Aviva-Cofco Life	2002. 12	50.0%	한국 Samsung P&C	2005. 4	100%
일본 PKU Founder Life	2002. 11	29.2%	일본 Sompo Insurance	2005. 5	100%
네덜란드 Aegon THTF Life	2003. 4	50.0%	한국 Hyundai Insurance	2007. 3	100%
일본 Great Wall Changsheng Life	2003. 9	30.0%	영국 Lloyd's Insurance	2007. 3	100%
미국 Cigna CMB Life	2003. 8	50.0%	이탈리아 Generali China	2007. 4	49.0%
영국 Heng An Standard Life	2003. 12	50.0%	일본 Mitsui Sumitomo Insurance	2007. 9	100%
남아공 Old Mutual Life	2004. 1	50.0%	미국 Chubb Insurance	2008. 2	100%
대만 Cathay Life	2004. 12	50.0%	스위스 Swiss Re Corporate	2008. 3	100%
미국 Huatai Life	2005. 3	20.0%	대만 Cathay Insurance	2008. 8	49.0%
한국 BOC-Samsung Life	2005. 5	25.0%	일본 Aioi Nissay Dowa Insurance	2009. 1	100%
남아공 Ping An Health	2005. 6	25.0%	일본 NIPPONKOA Insurance	2009. 6	100%
미국 Met Life	2005. 8	50.0%	한국 LIG China	2009. 10	100%
프랑스 Sino-French Life	2005. 12	25.0%	독일 Allianz Jindong	2010. 1	50.0%
싱가포르 Evergrand Life	2006. 5	25.0%	대만 Fubon P&C	2010. 10	80.0%
대만 King Dragon Life	2008. 11	50.0%	프랑스 Groupama-AVIC P&C	2011. 2	50.0%
대만 Ding Cheng Life	2009. 3	25.0%	프랑스 AXA	2011. 3	100%
영국 HSBC Life	2009. 6	50.0%	스위스 Zurich General Insurance	2013. 7	100%
미국 PF Life	2012. 9	50.0%	미국 Starr P&C	2014. 6	97.0%
한국 Sino-Korea Life	2012. 11	50.0%	-	-	-
독일 Ergo Life	2013. 7	50.0%	-	-	-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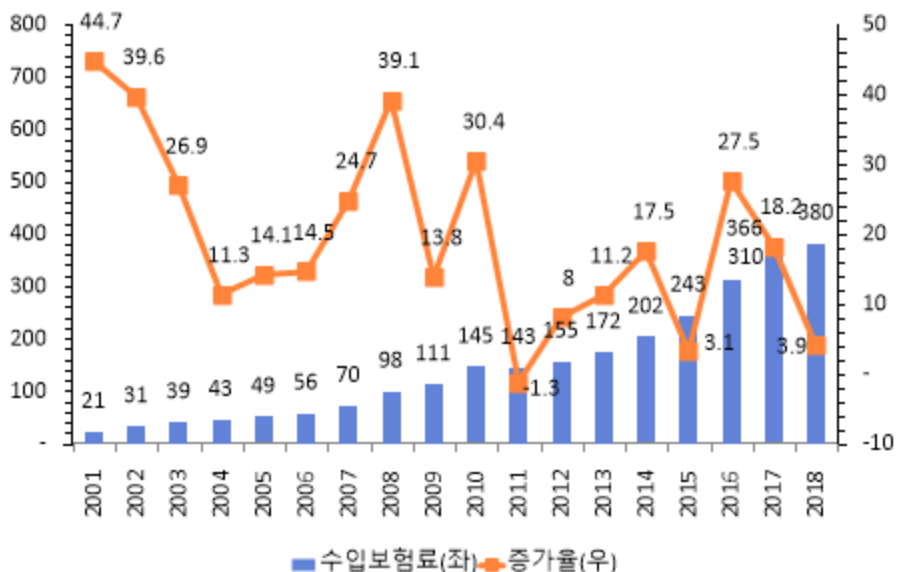
가. 시장 규모의 확대

○ 중국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개수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음

- 1994~2000년: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00년 1,598억 위안으로 1994년 376억 위안 대비 연평균 27.3% 증가했음
 - 보험회사 수는 1991년 4개사에서 2000년 33개사로 크게 증가했음
- 2001~2017년: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01년 2,109억 위안에서 매년 19.5% 씩 증가해 2017년 3조 6,581억 위안까지 증가했음
 - 보험회사 개수는 2000년 33개에서 2017년 165개사로 크게 증가함

〈그림 II-1〉 중국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백억 위안, %)



자료: Swiss Re(2002~2019)

나. 감독규정 및 감독체계의 형성

-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보험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중국 보험산업은 비로소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음
 - 1995년 중국 정부는 보험업 경영활동의 규범화를 위해 보험계약, 보험회사, 보험경영규칙,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법을 제정함
 - 보험법 제정 이후 『보험대리인관리규정(시행)』(1997년), 『보험사정인관리규정(시행)』(2000년), 『보험중개인관리규정(시행)』(2008년), 『보험회사관리규정』(2009년) 등과 감독규정이 제정되면서 보험산업과 관련된 법체계가 형성됨
 - 1998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중국인민은행의 보험감독 역할을 맡게 되고 중국 내 모든 보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게 됨
 - 2018년 중국 정부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으로 인한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위원회를 신설함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¹⁰⁾

가. 개방조치

-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금융시장 전면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춤
 - 2018년 4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전면적인 금융개방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시장의 전면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18년 초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됨
 - 중국 정부는 2018년 7월에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기존의 50%에서 51%까지 상향조정했으며 2020년 1월에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폐지함

10) 经济日报(2021), “保险业对外开放向纵深推进”(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4/01/c_1127281007.htm)

- 2003년 12월 중국 정부는 손해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상한을 폐지했음
- 2021년 3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보험회사를 소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외국기관을 보험회사에서 금융회사까지 확대했음
 - 다만 외국 보험회사나 외국 보험그룹은 설립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외국 금융회사는 투자 방식으로만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9년 10월에 외국 보험회사의 요구조건 중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2년 이상의 대표처 운영경력을 포함한 영업허가 제한조치를 폐지했으며 동년 12월에 외자보험회사의 영업지역 제한조치를 폐지함
 - 영업지역 제한조치 폐지로 외자보험회사는 중자보험회사와 같은 감독규정을 받아서 영업지역 확대에 유리해짐

나. 외국 보험회사 진출 현황¹¹⁾

- 2018년 보험시장 전면 개방 결정 이후 중국에서 합자 중국법인을 보유하는 CHUBB, AXA, HSBC는 중국 주주의 지분 인수를 추진했거나 계획을 발표함
 - 2019년 12월 AXA는 합자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주주 지분을 인수해 독자 손해보험회사를 소유하게 됨
 - 2020년 5월 HSBC는 합자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주주와 지분 양도에 대해 합의해 전체 회사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 2020년 6월 CHUBB는 화태보험그룹의 중국 주주에서 지분의 15.3%를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화태보험그룹 지분의 46.2%까지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음
- Standard Life, Allianz, AIA는 중국 시장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지만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중국법인을 설립함
 - 2018년 12월 중국에서 독자 손해보험회사 및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Allianz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함
 - 2021년 2월 합자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주주와 지분 양도에 대해 합의해 전체 회사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11) 보험연구원(2020)

- 2019년 3월 Standard Life는 보유 중인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연금 보험 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함
 - 2020년 6월 AIA는 중국에서 생명보험업무를 영위하는 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함
 - 2020년 6월 이전에 AIA는 5개 지사의 형태로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했음
- Allianz, ERGO, AIA는 중국 사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중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4월 Allianz는 보험지주회사에 이어 중국태강보험그룹 지분의 4%를 인수함
 - 중국태강보험그룹은 2019년 기준 1조 7천 위안(약 290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대형 보험그룹이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 전문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ERGO는 중국에서 합자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2020년 6월에 태산손해보험회사 지분의 25%를 인수해 손해보험업에 진입함
 - 2021년 6월 AIA는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9%에 대한 인수 계획을 발표함
 -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한국 우체국보험회사와 유사한 보험회사이며 2020년 기준 중국 생명보험시장 10위권에 진입함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¹²⁾

가.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은 중국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2001~2002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실시한 조사결과는 중국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보험회사와 정부의 홍보 활동이 부족했음을 보여줬음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으며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에 달했음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 1992년 상하이에 진출한 미국 AIA는 최초로 보험설계사채널을 도입했으며 많은 영업사원이 시민들과의 1대1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면서 고객의 호평을 받게 되었음
 - AIA와 같은 외자보험회사들의 보험판매 활동은 중국인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외국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보험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됨
 - 외국 보험회사의 상하이 진출 이후 상하이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1992년 18억 위안에서 2000년 92억 위안으로 증가했음

나.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

- 기존의 중국 보험회사보다 경영 기법 등에서 월등히 앞선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은 상승했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회사들보다 직원교육 프로그램, 신상품 개발, 고객서비스, 자산운용 등에서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보유했음
 - 외자보험회사에 있었던 고위관리자나 영업사원은 중자보험회사로 이동하면서 중자보험회사의 선진적인 경영 기법 학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때 일부 중국 보험회사를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협력관계를 맺은 중국 보험회사는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직접 학습할 수 있게 되었음
 -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학습한 선진적인 경영 기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보험회사로 확산되어 전체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었음

다. 보험 인재 육성

-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보험회사보다 우수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했음
 - 중국 보험회사에 비해 외국 보험회사들이 도입한 인사제도는 보수체계,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영업사원의 적극성 및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 외국 보험회사에서 양성된 보험 인재가 중국 보험회사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 중국 보험회사 성장에도 효과가 있었음

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가. 요율 자유화 이전의 보험시장¹³⁾

- 2000년대 요율 자유화 이전까지 중국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요율을 사용해야 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요율을 사용했음
 - 1979~1985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보험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보험요율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음
 - 1985년 『보험기업관리 잠정조례』 발표 이후 당시 중국인민은행은 감독기관으로서 보험요율에 대한 승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보험회사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승인을 받은 보험요율을 사용했음
 - 1993년 중국인민은행은 승인을 받아야 사용될 수 있는 보험종목이 기업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국내 선박보험, 트랙터보험 등 13가지가 있다고 명시했음
 - 2000년에 발표된 『보험회사 관리규정』은 보험회사가 당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주요 보험상품의 보통계약과 요율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했음
 - 1998년 신설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보험감독 기능을 이전받았음
 - 주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하며, 이들의 보통약관과 요율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나 보험회사가 제정했음
- 가격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보험회사들은 영업조직을 확장하는 외형경쟁에만 치중했음

13) 任自力(2019)

- 생명보험시장은 다른 금융산업과의 경쟁 없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음
- 일부 중국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당한 판매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이미지 악화 및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했음
 - 부당한 판매수단은 리베이트 지급, 보험상품 허위설명 등이 있었음

나. 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보험¹⁴⁾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보통형 보험, 유니버설보험, 유배당보험의 순서대로 추진됨
 -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제1차(2001~2006년), 제2차(2006~2014년), 제3차(2015년~현재)의 순서대로 진행됨

1) 인보험

- 2003년 중국 감독당국은 생명보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경험생명표를 발표했으며 그 이후 한번 수정했지만 내용상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음
 - 2003년 경험생명표는 1996~2003년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 태강생명보험회사 및 AIA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정됨

가)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 2000년과 2005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각각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건강보험)의 요율규제를 완화했음

14) 중국에서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 통칭하고 있음. 인보험은 보통형 및 신행 보험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보통형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이 확정된 보험을 의미함. 신행 보험은 유배당보험, 유니버설보험 및 투자연계형 보험이 있음

- 2000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상해보험(항공여객상해보험 제외) 요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2007년 항공여객상해보험의 요율규제도 폐지되어 보험회사는 스스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2006년 감독당국은 단기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회사가 할인할증 범위에서 단기건강보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허용했음¹⁵⁾

나) 보통형 보험

- (예정이율) 2013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보통형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¹⁶⁾
 - 1999년 중국인민은행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을 2.5%로 설정했으며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예정이율 상한을 변경하지 않았음
 - 예정이율이 법정평가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정이율이 법정평가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허가가 나와 사용할 수 있음
 -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려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초과하여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50%를 초과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경영리스크 통제 및 악성 경쟁 통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법정 책임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음
 - 보통형 생명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3.5%로 설정되었고 현재까지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음
 - 보통형 연금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2013년에 4.025%로 설정됐다가, 2019년에 3.5%로 하향조정되었음
- (예정사업비율) 2020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통형 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을 종목별로 설정했음¹⁷⁾

15)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6)

16) 中央政府门户网站(2013)

17) 中央政府门户网站(2020)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보통형 보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은 개인보험 35%, 단체보험 25%로 설정되었음
-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보통형 보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은 아래와 같음

〈표 Ⅲ-1〉 보통형 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단위: %)

업무 유형	보험료 납입방식	연금보험	양로보험	정기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건강보험·상해보험
개인보험	정기납입	16	18	35
	일시납입	8	10	18
단체보험	정기납입	10	-	15
	일시납입	5	-	8

자료: 中银国际证券(2020)

다) 유니버설보험¹⁸⁾

○ (최저보증이율) 2015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유니버설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최저보증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허가가 나와 사용할 수 있음
 - 유니버설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3.5%로 설정되었음
-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저보증이율준비금의 명목으로 지급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음

라) 유배당보험¹⁹⁾

○ (예정이율) 2015년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신중성 원칙에 따라 유배당 보험의 예정

1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5)

19)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이율 상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예정이율이 3.5%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예정이율이 3.5%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독당국 허가하에 사용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경영리스크 통제 및 악성 경쟁 억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미경과책임준비금 적립을 요구했음
 - 유배당보험의 법정평가이율 상한은 3.0%로 설정되었음

○ (예정사업비율) 중국 보험회사는 스스로 예정사업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평균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표 Ⅲ-2〉 유배당보험의 평균 예정사업비율 상한

(단위: %)

업무유형	보험료 납입방식	연금보험	양로보험	종신생명보험
개인보험	정기납입	16	16	30
	일시납입	8	8	18
단체보험	정기납입	10	-	15
	일시납입	5	-	8

자료: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2) 자동차보험²⁰⁾

-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크게 강제보험 및 상업보험으로 구분되며, 강제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중국 감독당국이 발표한 약관과 요율을 사용하여야 함
 - 강제보험은 2006년부터 의무보험제도로 시행되었으며, 감독당국은 통일된 약관과 요율을 공표하고 있음
-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 보험소비자 보호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1년부터 세 번을 거쳐서 자동차 상업보험 제도개혁을 시행했음
 -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아래부터 논의되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지칭함

20) 中银证券(2020)

가) 제1차(2001~2006년) 개혁

-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동질성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2001년 감독당국은 광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자동차보험 요율 할인할증 제한을 폐지하고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결정권을 부여했음
 - 2002년 감독당국은 2001년부터 광둥에서 시작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자유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 다만 2006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요율의 할인 폭을 30%로 제한했음
 - 자동차보험 요율의 할인 요인은 사고 발생 여부, 차량 운전자, 차량 특성 등이 있었음

나) 제2차(2006~2014년) 개혁

- 중국 감독당국은 제1차 자동차보험 개혁으로 인한 소비자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으며, 일부 대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했음
 - 제1차 자동차보험 개혁 이후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가격경쟁에만 집중했으며, 일부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로 소비자민원은 급증했음
 - 2006년 감독당국은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중국태평양손해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약관을 표준약관(A, B, C)으로 지정했으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 B, C 중 선택한 하나를 사용해야 했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가지 표준약관과 요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인가했음
 - 2012년 감독당국은 요구조건을 충족한 보험회사가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소수 대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여야 했음
 - 감독당국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이 있었음

〈표 Ⅲ-3〉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개발 요구조건

-
- 관리구조 완비, 내부제도 건전, 데이터 충족, 자동차 상업보험 운영기관 3년 이상
 - 최근 연속 2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
 - 최근 연속 2년 동안 심사 후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30만 건 이상 자동차 상업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
 - 자동차 상업보험 상품개발 전문 인력, 법률 및 자동차 상업보험 실무 운영 전문 인력, 경영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보유
 - 감독당국이 요구한 기타 사항
-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2)

다) 제3차(2015년~현재) 개혁

○ 2015~2019년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대상으로 표준약관과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는 제도개혁을 추진했음

- 감독당국은 2015년에 헤이룽장, 산둥, 칭다오, 광시, 산시, 충칭 6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6년에 두 번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3차 자동차 상업보험 제도개혁을 확대함
 - 보험협회는 새로운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상업보험 표준약관 수정 및 자동차 상업보험의 기본보험료 산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보험회사는 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됨
 - 협회에서 제정된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할인할증 조정권을 부여받으며 심사계수와 채널계수²¹⁾를 이용해 각각 <0.85~1.15>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2017년과 2018년에 감독당국은 지역 간의 상이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했음
 -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

21) 심사계수는 가입자 특정, 차량 특정 등에 따라 산출된 할인할증 계수를 의미하며, 채널계수는 CM채널, TM채널 등과 같은 판매채널에 따라 산출된 할인할증 계수를 의미함

〈표 Ⅲ-4〉 자동차 상업보험 할인할증 범위

2017년 할인할증	• 선진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 〈0.70~1.25〉, 채널계수〈0.70~1.25〉 • 허난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80~1.15〉, 채널계수〈0.75~1.15〉 • 텐진, 허베이, 푸젠, 광시, 쓰촨, 칭하이, 사문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5~1.15〉, 채널계수〈0.75~1.15〉 • 기타 지역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85~1.15〉, 채널계수〈0.75~1.15〉
2018년 할인할증	• 쓰촨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65~1.15〉, 채널계수〈0.65~1.15〉 • 산시, 푸젠, 산둥, 허난, 사문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0~1.15〉, 채널계수〈0.70~1.15〉 • 신장의 할인할증 범위는 심사계수〈0.75~1.15〉, 채널계수〈0.75~1.15〉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 2019년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시장질서 위반행위 단속,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접수 제도 설립 및 자동차보험 정보플랫폼을 통한 감시를 포함한 조치를 발표했음
 - 자동차보험 정보플랫폼은 감독당국 주도하에 출범된 자동차보험 정보공유 플랫폼이며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중국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 강제보험 및 상업보험을 포함한 종합 제도개혁을 추진했음

- 2015~2019년 감독당국은 자동차 상업보험 제도개혁을 추진했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산업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됨
 - 2017년 기준 손해보험에 관한 소비자민원 건수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를 기록함²²⁾
- 높은 영업수수료, 불투명한 사업비 구조, 한정된 보험상품 종류 등이 자동차보험 산업 발전 제한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의 제도개혁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자동차 강제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보상한도 상향조정, 지역별 차등 할인할증제도 도입이 있음
 - 보상한도 금액은 12.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무책임 보상한도 금액은 1.21만 위안에서 1.99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음

2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 지역별 차등 없이 3년 무사고 할인 폭은 기존의 30%에서 지역별 자동차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한 50%로 확대되었음
- 상업보험에 관한 개혁내용은 보상한도 상향조정, 보장범위 조정, 사업비율 상한 하향조정, 할인할증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보상한도 금액은 5만~500만 위안에서 10만~1,0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특약에 속했던 차량 도난, 유리 단독 파손, 자연 발화 및 침수 등 보장 내용은 주계약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비율 상한은 35%에서 25%로 하향조정되었으며, 할인할증 범위는 <0.85 ~ 1.15>에서 <0.65~1.35>로 조정되었음

〈표 Ⅲ-5〉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혁 내용

자동차 강제보험	• 보상한도 금액은 12.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무책임 보상한도 금액은 1.21만 위안에서 1.99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지역별 차등 없이 3년 무사고 할인 폭은 기존의 30%에서 지역별 자동차 사고빈도를 고려한 50%로 확대
자동차 상업보험	• 보상한도 금액은 5만~500만 위안에서 10만~1,000만 위안으로 상향 • 특약이었던 차량 도난, 유리 단독 파손, 자연 발화 및 침수 등 보장 내용은 주계약으로 변경 • 상업보험의 사업비율 상한은 35%에서 25%로 하향조정 • 기존의 심사계수와 채널계수는 조정계수로 통합되고 할인할증 범위는 <0.85~1.15>에서 <0.65~1.35>로 조정 • 논란 여지가 큰 면책약관, 보험사고 면책률에 관한 내용 삭제 • 신재생에너지보험, 운전자 상해보험, 차량보증 기간연장보험 등 상품 개발 장려 •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조정주기(1~3년) 구축 • 무사고 할인 평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표준약관의 보험요율을 이용해 개발하는 자동차보험은 허가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조정하고 경험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자동차보험은 허가 대상으로 유지 • 중소형 보험회사의 차별적인 자동차보험 개발 장려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보험상품

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범위²³⁾

○ 중국의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각각 아래와 같은 기초업무 및 확장업무로 세분화되어 있음

- 생명보험업은 기초업무 5종목, 확장업무 2종목이 있음
 - 기초업무: ① 보통형 보험(생명보험, 연금보험 포함), ② 건강보험, ③ 상해보험, ④ 유배당보험, ⑤ 유니버설보험
 - 확장업무: ① 투자연계형 보험, ② 변액연금
- 손해보험업은 기초업무 5종목, 확장업무 4종목이 있음
 - 기초업무: ① 자동차보험(강제보험 및 상업보험 포함), ② 기업·가계재산보험과 공사보험(특수위험보험 제외), ③ 책임보험, ④ 선박·운송보험, ⑤ 단기건강보험과 상해보험
 - 확장업무: ① 농업보험, ② 특수위험보험(항공우주보험, 해양개발보험, 석유가스보험, 원자력보험), ③ 신용보증보험, ④ 투자형 보험

○ 보험회사는 기초업무 및 확장업무에 속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설 보험회사는 기초업무만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초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후 순서, 추가 등록자본금 및 기타 요건이 있음
- 보험회사는 제①~③항의 기초업무 영위자격을 갖춰야 확장업무 보험종목을 신청할 수 있음
 - 확장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종목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의 간격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됨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겸업할 수 없음
 - 다만 손해보험회사는 단기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3)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표 Ⅲ-6〉 생명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구분	보험종목	요구 조건
기초 업무	① 보통형 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포함) ② 건강보험 ③ 상해보험 ④ 유배당보험 ⑤ 유니버설보험	① 2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으로 신설된 보험회사는 ①~③항 중 1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전 3항 중 1개씩 더 신청하면 2억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 추가가 필수 ③ 전 3항, 제④항, 제⑤항 중 보험종목을 신청하려면 등록자본금이 10억 위안 이상 ④ 전체 기초업무를 신청하려면 등록자본금이 15억 위안 이상 ⑤ 제④항 및 제⑤항을 신청하려면 전 3항을 먼저 신청하여야 함 ⑥ 제②항, 제④항 및 제⑤항을 신청하려면 내부통제제도, 전담인력, 서비스능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필수 ⑦ 법률, 행정법규 및 보험감독기관이 정한 기타 조건
확장 업무	① 투자연계형 보험 ② 변액연금	- 투자연계형 보험: ④ 경영기간이 3개 회계연도 이상; ⑤ 최근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20억 위안 이상; ⑥ 전 연도 및 최근 4개 분기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 ⑦ 건전한 지배구조와 유효한 내부통제가 있고 전 분기의 유형별 위험 평가등급이 A 또는 B를 기록; ⑧ 내부통제제도, 전담인력, 서비스능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구비; ⑨ 최근 3년 중대 위법·위규 행위가 없음; ⑩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 - 변액연금: ④ 경영기간이 6개 회계연도 이상; ⑤ 투자연계형 보험 영업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⑥ 최근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30억 위안 이상; ⑦~⑩항이 상기④~⑩항과 동일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표 Ⅲ-7〉 손해보험업의 업무범위 및 보험종목

구분	보험종목	요구 조건
기초 업무	① 자동차보험 (강제보험, 임의보험 포함) ② 기업/가계재산보험과 공사보험 (특수위험보험 제외) ③ 책임보험 ④ 선박/운송보험 ⑤ 단기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① 2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으로 신설된 보험회사는 1개만의 보험종목을 신청할 수 있음 ② 보험종목 1개씩 더 신청하면 2억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추가가 필수 ③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
확장 업무	① 농업보험 ② 특수위험보험 (항공우주보험, 해양개발보험 석유가스보험, 원자력보험 포함) ③ 신용보증보험 ④ 투자형 보험	• 농업보험: ① 경영기간이 3개 회계연도 이상; ② 연속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10억 위안 이상; ③ 전연도 및 최근 4개 분기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함; ④ 최근 3년 중대 위법·위규 행위가 없음; ⑤ 법률, 행정법규 및 감독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 • 특수위험보험: ①~⑤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⑥ 건전한 지배 구조와 유효한 내부통제기 있고 전 분기의 유형별 위험 평가등급이 A 또는 B를 기록; ⑦ 내부통제제도, 전담인력, 서비스능력, IT시스템 및 재보험계획 필수 • 신용보증보험: ①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② 연속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20억 위안 이상; ③~⑥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 투자형 보험: ① 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② 연속 3년 연말 평균 순자산이 30억 위안 이상이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순이익 합은 플러스 기록; ③~⑥항이 상기와 동일한 조건; ⑦ 독립적인 자산운용관리부서,完비한 자산운용제도, 위험통제제도가 필수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나. 판매현황

1) 생명보험회사

○ 2019년 기준 유배당보험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형 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의 순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2015년 40.8%에서 2017년 32.3%로 축소됐다가 2019년 41.6%

로 확대됨

- 보통형 보험의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7년 49.6%로 상승했다가 2019년 34.1%로 하락함
- 건강보험의 비중은 2015년 13.7%에서 2019년 21.6%로 크게 상승했음
- 투자연계형 보험, 유니버설보험, 상해보험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표 Ⅲ-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통형 보험	보험료	6,627	10,314	12,879	9,104	9,482
	비중	42.1	47.6	49.6	34.7	34.1
유배당보험	보험료	6,411	6,880	8,395	11,495	11,555
	비중	40.8	31.8	32.3	43.8	41.6
투자연계형 보험	보험료	4	4	4	4	4
	비중	0.0	0.0	0.0	0.0	0.0
유니버설보험	보험료	96	235	115	109	109
	비중	0.6	1.1	0.4	0.4	0.4
상해보험	보험료	430	502	588	659	639
	비중	2.7	2.3	2.3	2.5	2.3
건강보험	보험료	2,156	3,728	3,980	4,868	6,012
	비중	13.7	17.2	15.3	18.6	21.6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2) 손해보험회사

○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2~6위에 진입한 보험상품은 보증보험, 단기건강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상해보험임

- 2015년과 비교할 때 2019년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축소됐지만, 보증보험, 단기건강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상해보험의 비중은 상승했음
- 2015~2019년 상기 보험상품 외의 보험상품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III-9〉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차보험	보험료	6,196	6,838	7,594	7,843	8,196
	비중	73.4	73.6	62.2	66.5	62.7
보증보험	보험료	202	179	386	646	844
	비중	2.4	1.9	3.2	5.5	6.5
단기건강보험	보험료	225	289	717	563	837
	비중	2.7	3.1	5.9	4.8	6.4
책임보험	보험료	303	365	464	596	758
	비중	3.6	3.9	3.8	5.1	5.8
농업보험	보험료	379	421	484	578	680
	비중	4.5	4.5	4.0	4.9	5.2
상해보험	보험료	204	253	1,267	425	535
	비중	2.4	2.7	10.4	3.6	4.1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392	390	407	435	478
	비중	4.6	4.2	3.3	3.7	3.7
신용보험	보험료	194	201	216	243	200
	비중	2.3	2.2	1.8	2.1	1.5
화물운송보험	보험료	90	87	112	122	131
	비중	1.1	0.9	0.9	1.0	1.0
공사보험	보험료	88	99	119	128	124
	비중	1.0	1.1	1.0	1.1	0.9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44	52	69	76	92
	비중	0.5	0.6	0.6	0.6	0.7
특수위험보험	보험료	43	42	51	61	70
	비중	0.5	0.5	0.4	0.5	0.5
선박보험	보험료	55	51	48	54	56
	비중	0.7	0.6	0.4	0.5	0.4
기타 보험	보험료	34	26	282	31	64
	비중	0.4	0.3	2.3	0.3	0.5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가. 자유경쟁체제 미형성

○ 중국에서 요율 자유화는 진행됐지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진행됐지만,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됨
 -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종목별 예정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에 대해 상한을 설정했음
-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는 제도개혁에 따라 추진됐지만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여전히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됨

나. 자동차보험 개혁에 따른 대형 보험회사 경쟁우위 상승

○ 자동차보험의 제도개혁에 따른 보험약관과 요율 변화는 중소형 보험회사보다 대형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 제3차 자동차보험 종합 제도개혁 이후 보험회사는 협회의 표준약관과 요율 및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협회의 표준약관과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할인할증 조정권을 부여받아 조정계수를 이용해 기본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과 요율 개발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감안할 때 대형 보험회사들만은 자사만의 약관과 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30만 건 이상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와 같은 요구조건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만족할 수 없는 조건임

다. 건강보험 및 비(非)자동차보험의 고성장

○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단기건강보험 미포함) 및 손해보험회사의 비(非)자동차보험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19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6,012억 위안으로 2015년(2,156억 위안)에 비해 약 3배 증가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은 2015년 13.7%에서 2019년 21.6%로 상승함
- 2019년 비(非)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4,869억 위안으로 2015년(2,253억 위안)에 비해 약 2배 상승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은 2015년 26.6%에서 2019년 37.3%로 상승함
 - 특히 보증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5년 202억 위안, 225억 위안에서 2019년 844억 위안, 837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비중은 각각 2015년 2.4%, 2.7%에서 6.5%, 6.4% 상승함

IV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²⁴⁾

가. 채널현황

○ 중국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은 크게 직접 및 간접 판매채널로 구분됨

- 직접 판매채널은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도 전화, 인터넷 및 우편물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간접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가 있음

1) 직접 판매채널

가) 직원

○ 보험회사 직원은 직접 고객에게 방문해 기업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부 중국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했으며, 보험중개회사가 보험회사 직원과 경쟁 관계를 형성했음
-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은 리베이트 지급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보험중개회사와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됐으나 보험회사 직원이 기업 고객과 보험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여전히 발생해서 보험회사 직원에 의한 직접 판매채널의 사업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다수 보험회사는 보험판매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능력보다 인맥을 더 중요시함

24) 보험연구원(2020)

나) TM채널

○ TM채널을 이용하는 중국 보험회사는 TM채널 규제강화 및 CM채널 부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 2010년과 2013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각각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제도 등 관련 조치를 도입함²⁵⁾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유고객이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고객에게만 전화할 수 있음
- 2019년 TM채널을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수는 각각 2015년 32개, 32개에서 22개, 23개로 크게 감소함²⁶⁾
 - TM채널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2015년 142억 위안에서 176억 위안까지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5년 891억 위안에서 288억 위안으로 감소함
- 통화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가 TM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보험기간이 짧은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
 - TM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만기환급형 생명보험, 중대질병보험, 암보험,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한 건강보험 등이 있음
 -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자필 서명을 대신해 음성 녹음을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함
- 보험회사는 TM채널을 통해 보험설계사채널이나 CM채널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판매 자격을 취득한 은행은 자사 콜센터를 통해 은행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은행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은행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25)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0. 1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3)

26) 中国保险业协会(2016); 中国保险业协会(2020); 陈辉(2020)

〈표 IV-1〉 T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보험료	142	165	199	214	176
	증가율	16.4	16.2	20.6	7.5	-17.8
손해보험	보험료	891	962	833	337	288
	증가율	-0.2	8.0	-13.4	-59.5	-14.5

주: 생명보험은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陈辉(2020)

다) CM채널

○ 대다수 중국 보험회사는 CM채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CM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은 ①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 ② 일반보험회사의 온라인플랫폼 구축, ③ 보험대리회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④ 판매자격이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있음

- 2020년 CM채널을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6년과 같은 61개를 유지했지만, CM채널을 이용하는 손해보험회사 수는 2016년 49개에서 73개로 증가함
 -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온라인채널만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전문보험회사는 4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중안온라인보험회사, 태강온라인보험회사, 이안온라인보험회사 및 안심온라인보험회사임
- C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각각 2016년 1,797억 위안, 502억 위안에서 2019년 12,111억 위안, 798억 위안까지 상승함
 - 다만 CM채널 총수입보험료가 전체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5%에서 2019년 6.4%로 축소됨
- CM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짧은 정기보험, 연금보험, 자기부담금이 높은 의료보험,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휴대폰액정파손보험, 비행기지연보험, 소포반송보험 등이 있음
 - 사망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 등 보험기간이 길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은 CM채널에서 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IT회사는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에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

으며, 보험종목별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90%인 것으로 나타남²⁷⁾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IT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기여하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유치한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표 IV-2〉 CM채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명보험	보험료	1,797	1,383	1,193	1,858	2,111
	증가율	22.6	-23.0	-13.7	55.7	13.6
손해보험	보험료	502	493	695	839	798
	증가율	-34.6	-1.8	40.9	20.6	-4.8

주: 생명보험은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产业信息网(2021)

2) 간접 판매채널

가)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채널은 1992년 미국 AIA생명보험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도입됨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모두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장기납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고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보장 및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채널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채널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는 AIA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가 있음

27) 新华网(2019)

나) 보험대리회사

○ 중국의 보험대리회사는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가 있음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은행, 우체국, 자동차4S점,²⁸⁾ 기업, 사회단체 등이 있음
- 중국에서 전문보험대리회사보다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임

① 전문보험대리회사

○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로 구분될 수 있음
 -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국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는 법인 소속 지역에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2021년 1월까지 전국 전문보험대리회사 및 지방 전문보험대리회사 수는 각각 243개, 1,760개를 기록함²⁹⁾
- 상위 전문보험대리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전문보험대리회사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험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처럼 단순한 보험판매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채널을 더 선호하고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회사는 과도한 의존을 파하기 위해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② 겸업보험대리회사

○ 겸업보험대리회사는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겸업보험

28) 중국의 자동차4S점은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 part), 사후서비스(Service), 정보조사(Survey)의 4가지 기능을 갖춘 자동차 유통매장을 의미함

29) 零壹财经(2021)

대리회사는 은행 및 자동차4S점임

- 은행채널(방카슈랑스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보험설계사채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판매채널이며,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는 은행채널을 이용하고 있음
 - 보험자회사가 없는 은행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보험자회사가 있는 은행은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우선으로 판매하고 있음
 -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은 보험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자체 영업사원을 은행 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금지됨
 - 은행은 지점별로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마다 최대 3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은행과 보험회사는 서로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는 은행은 7개사가 있음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ICBC-AXA Life, CCB Life, ABC Life, BoComm Life, CIGNA & CMB Life, BOB-Cardif Life, BOC Samsung Life임
- 자동차4S점은 자동차보험 판매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전문회사만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4S점은 다른 판매채널보다 자동차 신규 구매자에게 자동차보험을 상대적으로 쉽게 판매할 수 있음
 - 2020년 9월 중국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사업비 비율 상한을 35%에서 25%로 하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4S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³⁰⁾
- 2018년 기준 겸업보험대리회사 수는 3만 2천 개가 있으며, 이들은 22만 개 이상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다) 보험중개회사

- 보험중개회사가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
 - 2021년 1월까지 보험중개회사 수는 496개가 있는데 베이징(174개), 상하이(82개)

30) 信息时报讯(2020)

및 광둥(70개)에 집중됨³¹⁾

- 대다수 보험중개회사는 보험판매 외에 제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에서 보험중개회사의 주력 판매 상품은 기업보험 및 해상보험임

라) 보험회사의 교차판매

○ 교차판매 허용으로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³²⁾

- 교차판매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중국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며, 교차판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임
 - 교차판매 보험종목을 변경할 때마다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됨
- 하나의 회계연도에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는 하나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하나의 손해보험회사는 하나의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 여러 개 보험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의 경우 산하 보험자회사가 다른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나. 감독규정

1) TM채널

○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별로 따로 존재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생명보험회사의 전화판매업무 관리 방법』임
-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과 관리에 관한 통지』,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에 관한 통지』 및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전화채널 판매행위 금지』가 있음

31) 零壹财经(2021)

32) 第一财经(2019)

〈표 IV-3〉 생명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생명보험회사의 전화판매업무 관리방법』 (2013. 4 발표)	• 시장진입: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의 콜센터만이 TM채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회사의 TM채널 개설 조건 및 콜센터 설립 조건 명시, TM채널에서 판매 상품 유형 제시, TM채널 관련 정보공개 요구 등 • 판매행위: 고객정보 관리제도 수립, 전화판매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콜센터 직원 교육 요구, TM채널용 판매 용어 마련, TM채널의 보험판매 절차 명시 등 • 감독관리: 전화 호출 지역 소재 감독기구가 보험회사의 콜센터 설립에 대해 허가, 전화 수신자 소재 감독기구가 TM채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감독 등

〈표 IV-4〉 손해보험회사의 T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지』 (2007. 4 발표)	• 보험회사의 TM채널 이용 범위, TM채널 판매 상품 유형, TM채널 개설 절차, TM채널 이용 제도 수립 필요, TM채널용 상품 개발 및 업무 과정의 주의사항, TM채널 보험판매 홍보 방법 • 감독당국의 감독 내용 및 처벌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전용상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1. 11 발표)	• TM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강화, 경영행위 강화 내용 •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 요구 • 과대홍보 및 과열경쟁행위 금지 • 콜센터 신설 시 요구 조건 추가 • TM채널 판매과정에 인터넷 기술 이용 장려
『손해보험회사의 전화판매 시장질서 강화 및 무차별적인 전화채널 행위 금지』 (2013. 1 발표)	• 콜센터 전화번호 통합 요구 • 무차별적인 전화 호출 행위 금지 • 고객 정보 보호 제도 수립 요구 • 전화 호출 블랙리스트 신설 요구 • TM채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방문 및 민원처리 제도 수립 요구 • 콜센터 직원 교육 강화 필수

2) CM채널

○ CM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임

- 동 감독관리방법은 적용범위, 기본 경영규칙, 추가 경영규칙 및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서 CM채널 보험상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보험 협력회사를 공개해야 함
 - 보험사고 사정,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지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CM채널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함³³⁾
-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온라인플랫폼은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표 IV-5〉 CM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온라인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 (2020. 12 발표)	• 적용범위: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온라인보험 영업허가를 받은 온라인플랫폼 • 기본 경영규칙: 온라인보험업무의 경영조건, 판매관리, 서비스관리, 운영관리 • 추가 경영규칙: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일반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은행 포함), 보험중개회사, 온라인플랫폼 등 사업자별로 추가 요구사항 • 감독관리: 온라인보험업무의 감독 주체와 방법, 민원처리 방법, 업무정보 보고, 정보공개, 자율규제 등

3)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인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임

- 중국 감독당국은 과거에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규정하는 감독규정을 따로 제정했지만 2020년 11월에 보험대리인에 관한 감독관리

33) 보험회사는 지사가 없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채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일원화를 위해 이번의 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함

-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를 규정하는 『보험판매 종사자 감독관리방법』, 전문보험대리회사를 규정하는 『전문보험대리회사 감독관리규정』, 겸업보험대리회사를 규정하는 『겸업보험대리회사 관리 잠정방법』이 있었음
- 이번의 감독관리규정은 보험설계사, 전문 보험대리회사 및 겸업 보험대리회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인의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감독관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IV-6〉 보험설계사, 보험대리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 (2020. 11 발표)	• 시장진입: 업무허가(전문보험대리회사 및 겸업보험대리회사의 설립조건, 영업지역, 주주자격, 정보 변경 등), 임직자격(고위관리자의 자격 등), 종사자 관리(교육, 등록 등) 등 •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대리 범위, 준수사항, 보험설계사 관리, 금지행위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 상실 및 취소 • 감독관리: 보험대리인의 감독관리 주체, 방법, 현장조사 등

4) 방카슈랑스채널

○ 방카슈랑스채널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임

- 동 관리방법은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표 IV-7〉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상업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2019. 8 발표)	• 시장진입: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반 조건, 정보시스템 조건, 제출서류, 보험판매직원의 관련 정보 • 경영규칙: 보험판매에 관한 사전 계약, 상업은행의 보험판매 수행 내용, 판매직원의 교육, 상업은행 점포 현장 수행 내용과 주의사항, 점포당 3개사의 보험상품 판매 제한, 금지사항, 업무정보 보고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취소, 상업은행의 보험판매업무 중지, 판매직원의 영업허가 취소 등 • 감독관리: 감독내용, 은행협회와 보험협회의 역할, 규칙위반 시의 처벌 등

5) 보험중개회사

○ 보험중개회사와 관련된 감독규정은 『보험중개인 감독관리규정』임

- 동 감독관리규정은 시장진입, 경영규칙, 시장퇴출, 자율규제, 감독관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표 IV-8〉 보험중개회사 관련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감독규정	세부 내용
『보험중개인 감독관리규정』 (2019. 8 발표)	• 시장진입: 영업허가(설립조건, 영업지역, 주주자격, 정보변경 등), 임직자격(고위관리자의 자격 등), 종사자 관리(교육, 등록 등) 등 • 경영규칙: 영업장소 준수사항, 보험중개 범위, 준수사항, 보험중개인에 관한 관리, 금지사항 등 • 시장퇴출: 영업허가 효력의 연장, 상실, 취소 • 자율규제: 보험중개협회의 자율규제 제정, 보험중개인에 대한 관리, 교육 등 • 감독관리: 감독관리 주체, 방법, 현장조사 등

2. 판매채널 현황

- 중국 감독당국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전체 손해보험회사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통해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음

가. 생명보험 부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주력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채널 비중은 2015년 이후 상승한 반면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은 2016년 이후 하락함
 - 2019년 보험설계사채널 비중은 2015년 47.3%에서 60.6%로 상승한 반면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은 2015년 42.0%에서 27.7%로 하락함
 - 직접 판매채널 비중은 2015년 8.4%에서 2018년 7.4%로 감소했다가 2019년 8.4%

로 회복됐으며, 보험대리회사채널 및 보험중개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이후 1~2%에 머물고 있음

〈표 IV-9〉 생명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설계사	47.3	45.8	50.1	58.8	60.6
방카슈랑스	42.0	44.6	40.9	30.9	27.7
직접 판매채널	8.4	6.8	6.6	7.4	8.4
보험대리회사	1.8	2.2	1.8	1.9	2.3
보험중개회사	0.5	0.6	0.7	1.0	1.0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나. 손해보험 부문

○ 손해보험시장 1위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채널 및 전문 보험대리회사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설계사채널 및 전문 보험대리회사채널 비중은 각각 2015년 30.5%, 8.6%에서 2019년 32.3%, 25.2%로 상승함
- 직접 판매채널 비중은 2015년 36.9%에서 2018년 20.6%로 하락했다가 2019년 22.8%로 소폭 상승함
- 겸업 보험대리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18.8%에서 2019년 11.5%로 하락한 반면 보험중개회사채널 비중은 2015년 5.2%에서 2019년 8.2%로 상승함

〈표 IV-10〉 손해보험 연도별 판매채널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설계사	30.5	35.1	35.7	33.6	32.3
전문 보험대리회사	8.6	13.3	18.4	24.0	25.2
겸업 보험대리회사	18.8	18.3	16.5	13.9	11.5
직접 판매채널	36.9	28.3	23.7	20.6	22.8
보험중개회사	5.2	5.0	5.7	7.9	8.2

자료: 中国人民保险集团年度报告(2015~2019)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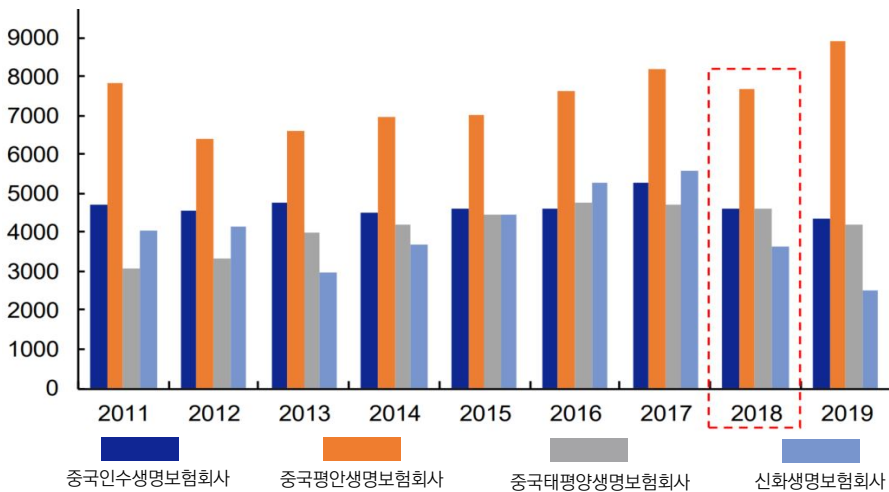
가.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가 있음

-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 기준 보험설계사채널 초년도 보험료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 보험설계사 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폐지로 2015년 471만 명에서 2019년 912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843만 명으로 감소함³⁴⁾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 보험판매 위축은 보험설계사 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

〈그림 IV-1〉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의 보험설계사채널 초년도 보험료

(단위: 천 위안,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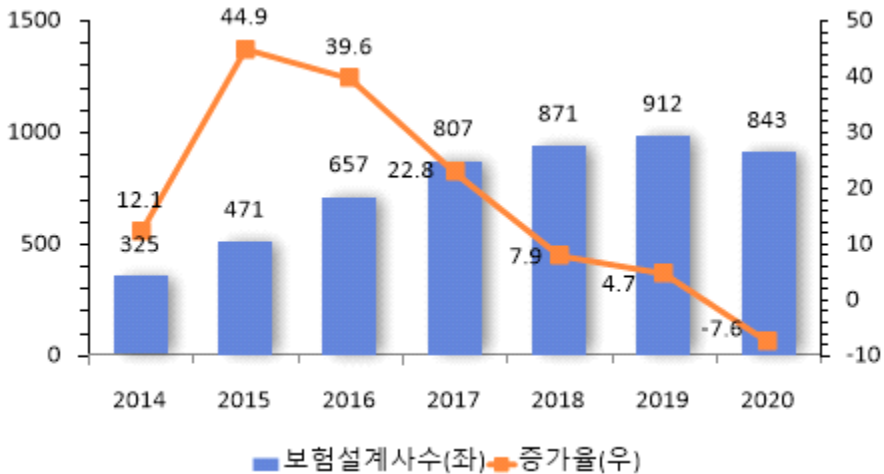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1)

34) 前瞻产业研究院(2021)

〈그림 IV-2〉 중국 보험설계사 수 및 증가율

(단위: 만 명, %)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1)

○ 2020년 12월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제도(GA)를 도입함³⁵⁾

-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보험판매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 영업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
 -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교차판매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대리하는 기타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³⁶⁾
 -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은 보험증권 발급, 사후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무보조 직원 3명까지 고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의 보험판매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문책할 수 있음

35) 중국의 GA채널은 한국 GA채널과 달리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으로 제한되고 있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6) 经济观察网(2020)

○ 다만 소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은 독립 개인보험대리채널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8월까지 대가생명보험회사, 동유생명보험회사 및 신태생명보험회사 3개사 만은 독립 개인보험대리인채널을 도입함
- 생명보험시장 상위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채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험설계사 채널의 질적 성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는 입사조건, 전문교육,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는 '설계사4.0'을 추진했으며,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는 입사조건, 영업실적 심사, 전문교육, 임금체계에 중점을 두는 '우수인재플랜'을 발표함

〈표 IV-11〉 생명보험회사 상위 4개사 보험설계사 수

(단위: 만 명, %)

구분	2018	2019	2020	CAGR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144	161	138	-2.1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142	120	105	-14.0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85	79	75	-6.1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51	39	38	-13.7

자료: 각 보험회사 『경영보고서』

나. 방카슈랑스채널의 중소형 보험회사 소외 문제

○ 비은행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채널 매출은 2019년에 시작된 방카슈랑스채널 규제강화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7개사가 있으며, 신계약보험료 기준 이들이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9%로 확대됨
- 2019년 중국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 및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금지, 법규위반의 처벌 조치 강화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의 관리방법』을 발표함
 -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 조치는 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 하한선을 20%로 설정했음

-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방카슈랑스채널의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방카슈랑스채널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관리방법이 방카슈랑스채널의 장기보험 판매를 장려하므로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은행들은 은행 고객의 가치 최대화를 위해 보험자회사의 보험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은행들이 보험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리베이트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에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리베이트를 포함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방카슈랑스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리베이트 지급 금지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및 은행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음

다. IT회사의 CM채널 지배력 확대

-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IT회사들은 판매채널로서 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CM채널 가운데 제3자 온라인플랫폼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IT회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표 IV-12〉 중국 IT회사들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현황

IT회사	주요사업	취득시기	취득자격 유형
앤티파이낸셜	간편결제, 은행, 자산관리	2017. 9	보험대리회사
메이뮌디엔핑	온라인주문배달	2018. 2	보험중개회사
텐센트	게임, 소셜미디어, 간편결제	2017. 9	보험대리회사
바이두	포털사이트	2017. 9	보험중개회사
360치후	사이버보안	2019. 1	보험중개회사
바이트댄스	동영상 공유	2018. 6	보험중개회사
디디추싱	온라인차량 호출	2016. 3	보험대리회사
징둥	전자상거래	2018. 12	보험중개회사
수닝	전자상거래	2014. 2	보험대리회사
씨트립	온라인여행 예약	2011. 7	보험대리회사
투뉴	온라인여행 예약	2013. 5	보험중개회사
동청	온라인여행 예약	2013. 8	보험대리회사
취날	온라인여행 예약	2013. 9	보험중개회사
시나	포털사이트	2017. 1	보험중개회사

자료: 보험연구원(2021)

○ 보험회사들은 IT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사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대형 보험회사들은 제3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시에 자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는 반해,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자금, 인력 및 브랜드 인지도의 제약으로 제3자 온라인채널을 주로 이용함
-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사 온라인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CM채널 중 IT회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부터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V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가. 운용자산 및 투자자산³⁷⁾

- 중국 보험회사(보험그룹 포함, 이하 동일)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하, ‘운용자산’이라 함)은 자본금, 보험적립금, 미배당이익, 각종 책임준비금 및 기타 자금으로 규정됨
 - 보험회사의 주주는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면 안 됨
 - 이는 2018년에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주주가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내용임
- 중국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하, ‘투자자산’이라 함)은 ① 은행예금, ② 채권, ③ 주식, ④ 펀드, ⑤ 부동산, ⑥ 회사 지분, ⑦ 증권화 투자상품, ⑧ 벤처투자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산이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사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직접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투자관리회사에 위탁투자할 수 있음
 - 투자관리회사는 보험회사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증권사, 자산관리회사, 펀드사가 있음
 - 중국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자산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 비은행 금융회사의 예금,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특별처리’나 ‘상장중지 위험이 있는 특별처리’ 대상 주식,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 및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자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사업(약관대출 제외) 및 감독당국이 금지한 기타 사업임

3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 한편,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을 이용해 사무용 부동산 매입, 상장회사 인수, 비상장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할 수 있음
 - 비상장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지급능력감독규정의 요구를 만족해야 함
 - 경영권 취득을 위한 비상장 회사 투자대상은 보험 관련 회사(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전문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보험사정회사), 비보험형 금융회사, 보험업무 관련 회사가 있음

나. 투자상한³⁸⁾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다시 세분화하여 자산유형별 투자상한을 설정함

- 보험회사의 투자자산(특별계정 미포함)은 크게 유동성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및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됨
 - 유동성 자산은 현금,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고 현금화가 쉽고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자산을 포함함
 - 고정수익형 자산은 만기가 명확하고 정해진 이율 및 형태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자산,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함
 - 주식형 자산은 상장 주식형 자산 및 비상장 주식형 자산을 포함함
 -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함
 - 기타 금융자산은 위험수익, 유동성 등과 같은 특징이 상기 자산과 다르고 상기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함
- 주식형 자산의 투자상한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설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1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00~1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20%로 한정됨

3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4);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150~19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25%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200~2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3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250~29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35%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300~349%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40%로 한정됨
- 전분기 지급여력비율이 350% 이상인 경우, 주식형 자산이 전분기 총자산에 차지하는 상한은 45%로 한정됨
- 부동산 관련 자산(사무용 부동산 미포함) 및 기타 금융자산의 투자상한은 각각 보험회사의 전분기 총자산의 30%, 25%로 설정됨

〈표 V-1〉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유형별 투자상한

투자자산	세부 내용	투자상한
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고 현금화가 쉽고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자산을 포함	상한 없음
고정수익형 자산	만기가 명확하고 정해진 이율 및 형태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자산,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	상한 없음
주식형 자산	상장 주식형 자산 및 비상장 주식형 자산을 포함	10~45%
부동산 관련 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상기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자산을 포함	30%
기타 금융자산	위험수익, 유동성 등과 같은 특징이 상기 자산과 다르고 상기 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	25%

주: 주식형 자산의 구체적인 투자상한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결정됨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4);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 또한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해 대상국가, 투자자산, 투자상한을 따로 설정함³⁹⁾

39)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장점방법』, 『보험자금 해외투자 관리장점방법 실시세칙』

-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대상국가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으로 구분됨
 - 선진시장(25개)은 호주, 홍콩,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이스라엘,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일본,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 독일, 뉴질랜드, 그리스, 노르웨이가 있음
 - 신흥시장(20개)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폴란드, 칠레, 한국, 러시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체코, 멕시코, 대만, 이집트, 모로코, 태국, 헝가리, 페루, 터키, 인도, 필리핀이 있음
- 투자자산은 화폐형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 부동산이 있음
 - 화폐형 자산은 만기가 1년 미만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역환매조건부약정, 단기 정부 채권 등이 있음
 - 고정수익형 자산은 은행예금, 정부 채권, 정부 보증형 채권, 국제금융기관 발행 채권, 회사채, 전환 가능 사채 등을 포함함
 - 주식형 자산은 선진시장의 보통주, 우선주, 글로벌 예탁증서, 미국 예탁증서, 비상장기업(금융, 양로, 의료, 에너지, 자원, 자동차 서비스, 현대농업 포함) 지분 등을 포함함
 - 부동산은 선진시장의 주요 도시 시내에 있는 상업 부동산을 한정됨
- 해외자산의 투자상한은 전년도 총자산의 15%로 설정되었으며, 해외자산 중 보험회사가 신흥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전년도 총자산의 10%로 한정됨
- 한편, 보험회사는 해외투자위험 해지에 있어서 이자스왑, 금리선물, 외화선물, 외환스왑, 주가지수선물 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2. 자산운용 현황

가. 총자산 및 운용자산

- 2020년 보험회사의 총자산 및 운용자산은 각각 2014년 10조 1,591억 위안, 9조 3,314억 위안에서 23조 2,984억 위안, 21조 6,801억 위안으로 증가함

- 2016년까지 약 20%를 유지했던 총자산 및 운용자산 증가율은 2017년부터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로 인해 10%대로 수직으로 하락함⁴⁰⁾
 - 중국 감독당국은 2016년부터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 ‘생명보험 계리 제도 개선방안’, ‘생명보험 감독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런 규정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유니버설보험 판매를 축소시켰음

〈표 V-2〉 보험회사 총자산 및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연도	총자산		운용자산	
	잔액	증가율	잔액	증가율
2014	10조 1,591	22.6	9조 3,314	21.4
2015	12조 3,598	21.7	11조 1,795	19.8
2016	15조 1,169	22.3	13조 3,910	19.8
2017	16조 7,489	10.8	14조 9,207	11.4
2018	18조 3,309	9.5	16조 4,089	10.0
2019	20조 5,645	12.1	18조 5,275	12.9
2020	23조 2,984	13.1	21조 6,801	17.0

자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统计资料(<https://www.cbirc.gov.cn/cn/view/pages/tongjishuju/tongjis.html>)

나. 투자자산⁴¹⁾

- 2020년 은행예금 잔액은 2016년 2조 4,844억 위안에서 2조 5,973억 위안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2016년 18.6%에서 12.0%로 하락함
 - 자산 비중 기준 2016년 투자자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은행예금은 예금금리 하락으로 2020년 4위로 밀려남
 - 2015년부터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회사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산에서 은행예금 비중을 축소함

40) 腾讯财经(2017)

41)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크게 유동성 자산, 고정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및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했으나 예금, 채권, 주식, 기타 자산의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현황을 공개함

-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015년 2%대에서 2016년 1.5%로 하락함

○ 채권 및 주식 잔액은 각각 2016년 4조 3,050억 위안, 1조 7,788억 위안에서 7조 9,329억 위안, 2조 9,822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각각 2016년 32.1%, 13.3%에서 36.6%, 13.8%로 확대됨

- 자산 비중 기준 2016~2020년 채권은 투자자산에서 2위를 유지하였으며 주식은 은행예금을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올라감

○ 2020년 투자자산 중 기타 자산 잔액은 2016년 4조 8,228억 위안에서 8조 1,677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2016년 36.0%에서 37.7%로 상승함

-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비상장 회사 지분, 사모펀드 등이 있으며 2016~2020년 투자자산에서 1위의 비중을 유지함

〈표 V-3〉 보험회사 투자자산 유형별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금	잔액	24,844	19,274	24,364	25,227	25,973
	비중	18.6	12.9	14.8	13.6	12.0
채권	잔액	43,050	51,613	56,383	64,032	79,329
	비중	32.1	34.6	34.4	34.6	36.6
주식	잔액	17,788	18,354	19,220	24,369	29,822
	비중	13.3	12.3	11.7	13.2	13.8
기타 자산	잔액	48,228	59,966	64,122	71,647	81,677
	비중	36.0	40.2	39.1	38.7	37.7
운용자산 합계		133,910	149,207	164,089	185,275	216,801

주: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자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统计资料(https://www.cbirc.gov.cn/cn/view/pages/tongjishuju/tongjis_huju.html)

○ 한편,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잔액은 2019년 기준 약 4,700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임⁴²⁾

42) 第一财经(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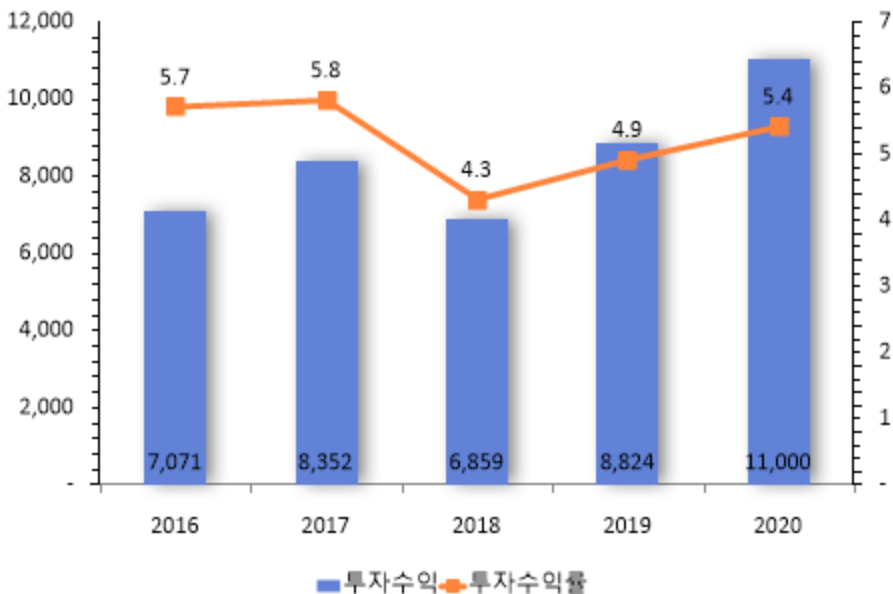
-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대상국은 홍콩, 미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자산은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이 있음
- 2019년 해외자산 잔액이 전년도 보험회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해 해외자산 투자상한(15%)에 크게 못 미침

다. 투자수익

-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은 2016년 7,071억 위안에서 2020년 1조 1,0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2018년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중국 주식시장 불황(상해종합지수, -24.6%)으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때문임

〈그림 V-1〉 보험회사 운용자산 투자수익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가. 제한적인 투자자산 종류

- 선진시장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중국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⁴³⁾
 - 예를 들면 투자자산에서 대출채권을 많이 배분하는 국내 보험회사와 달리 중국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또한 중국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규모(4,347억 위안, 2018년 기준)는 관련 감독규정 미비로 크지 않음⁴⁴⁾

나. 낮은 투자수익률

- 2016~2020년 중국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보다 더 낮았음
 - 2016~2020년 중국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6.9%를 기록하였음⁴⁵⁾
 -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족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무관심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43) 李敏佳 외(2021)

44) 新京报(2019)

45) 中国证券报(2021)

1. 계약자 보호제도⁴⁶⁾

가. 제도 개황

- 1995년 중국 정부는 피보험자의 이익 보장 및 보험회사의 안정경영 확보를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인 보험보장기금을 설립함
 - 보험보장기금은 생명보험보장기금과 손해보험보장기금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계좌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연금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생명보험보장기금에 적립되며,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손해보험보장기금에 적립됨
 - 감독당국이 설립한 보험보장기금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의 조성, 관리 및 사용을 담당하며, 보험보장기금회사의 이사회는 보험보장기금의 사용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이사회 위원은 감독당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사법부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되어야 함
- 보험보장기금의 적용대상 회사는 중국 내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며, 재원은 적용대상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이 있음
 - 자본 유형별로 보면 적용대상 보험회사는 중자보험회사, 중외합자보험회사, 독자외자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지사가 있음
 -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해외 원수보험업무와 수재보험업무, 정책성 보험업무, 기업연금업무는 적용대상에 제외됨
 - 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에 보험요율을 곱한 방식을

46)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8)

산출되며 보험회사의 적립금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일시 정지됨

- 생명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의 투자수익이 자사 총자산의 1%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부는 일시정지되며,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의 투자수익이 자사 총자산의 6%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부는 일시정지됨
-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도 파산보험회사 청산으로 생긴 소득, 기증, 이들 자금의 운용수익, 기타 소득은 보험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보험보장기금회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2021년 6월까지 중국 보험보장기금 규모는 1,708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보장기금과 손해보험보장기금 규모는 각각 647억 위안, 1,061억 위안임

〈표 VI-1〉 보험보장기금 제도 개황

구분	세부 내용
운용 주체	보험보장기금의 조정, 관리 및 사용은 보험보장기금회사가 담당하며, 보험보장기금회사의 이사회는 보험보장기금의 사용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기금 계정	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연금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생명보험보장기금에 적립되며,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손해보험보장기금에 적립됨
적용 대상	중자보험회사, 중외합자보험회사, 독자 외자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지사; 다만 해외 원수보험업무, 수재보험업무, 정책성 보험업무, 기업연금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제외함
기금 재원	비투자형 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의 0.8%, 투자형 손해보험 중 보증수익이 있는 경우 총보험료의 0.08%, 보증수익이 없는 경우 총보험료의 0.05%로 보험료를 납부함; 생명보험 중 보증수익이 있는 경우 총보험료의 0.15%, 보증수익이 없는 경우 0.05%로 보험료를 납부함; 단기건강보험은 수입보험료의 0.8%, 장기건강보험은 0.15%로 보험료를 납부함; 비투자형 상해보험은 0.8%, 투자형 상해보험 중 보증수익이 있는 경우 총보험료의 0.08%, 보증수익이 없는 경우 총보험료의 0.05%로 보험료를 납부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의 투자수익이 자사 총자산의 1%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부는 일시정지되며,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의 투자수익이 자사 총자산의 6%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부는 일시정지됨
기금 규모	2021년 6월까지 보험보장기금은 1,708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보장기금과 손해보험보장기금은 각각 647억 위안, 1,061억 위안임

자료: 中国保险保障基金公司(<http://www.cisf.cn>)

나. 보장 내용

- 보험보장기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조 및 부실 보험회사 처리에 사용될 수 있음
 -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조는 보험회사의 인가취소, 해산, 파산으로 청산자산이 피보험이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약자에 대한 구조를 의미하며, 부실 보험회사 처리는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사회 공공이익과 금융안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리를 의미함
- 보험보장기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조 제공에 있어서 보호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생명보험: 개인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의 90%까지 보상하지만 법인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의 80%까지 보상함
 - 다만 생명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보장기금의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손해보험: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전액을 보상하며, 개인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손실의 90%까지 보상하지만 법인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손실의 80%까지 보상함
 - 계약자의 손실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이익과 계약자가 청산자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간의 차액을 의미함
 - 다만 중국 감독당국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보험보장기금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금액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보험보장기금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사용할 때 인가취소나 청산 대상 보험회사의 적립금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기타 회원 보험회사의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함
 - 보험보장기금회사는 기타 회원 보험회사의 적립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타 회원 보험회사의 전년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생명보험보장기금은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구조 및 부실 생명보험회사 처리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보장기금은 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한 구조 및 부실 손해보험회사 처리에만 사용될 수 있음

〈표 VI-2〉 보험보장기금 보상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보상사유	보험회사의 인가취소, 해산, 파산으로 청산자산이 피보험이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약자에 대한 구조;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사회 공공이익과 금융안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 회사에 대한 처리
보호대상	개인 및 법인 보험계약자
보상금액	생명보험: 개인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의 90%까지 보상하지만 법인 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의 80%까지 보상함; 손해보험: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전액을 지급하며, 개인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손실의 90%까지 보상하지만 법인 계약자의 손실이 5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손실의 80%까지 보상
기금 사용방법	보험보장기금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사용할 때 인가취소나 청산 대상 보험회사의 적립금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기타 회원 보험회사의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함; 생명보험보장기금은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구조 및 부실 생명보험회사 처리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보장기금은 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한 구조 및 부실 손해보험회사 처리에만 사용될 수 있음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8)

다. 부실 보험회사 처리 사례

- 1995년 설립 이후 보험보장기금은 신화생명보험회사(2007년), 중화연합손해보험회사(2009년) 및 안방보험그룹(2018년)의 부실경영 처리에 사용되었음
 - 현재까지 보험보장기금은 인가취소, 해산, 청산 대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조를 이유로 사용된 적이 없음
- 2007년 보험보장기금은 지급여력 문제가 생긴 신화생명보험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했으며, 2009년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신화생명보험회사의 경영권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양도함
 - 2007년 신화생명보험회사는 당시 대주주인 룡흥그룹, 해남격림도회사, 동방그룹 등 3개 회사에 대한 불법대출(총 16억 위안)로 지급여력 부족 문제가 생겼음
 - 2009년 보험보장기금은 고위관리자 교체, 사업구조 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신화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경영권을 중앙회금회사에게 양도함
 - 보험보장기금은 신화생명보험회사 부실경영 처리에 있어서 28억 위안의 자금을 사용했지만 40억 위안의 자금을 회수했음

- 2009~2012년 보험보장기금은 중화연합보험회사의 지분 91.5%를 인수했으며 2012~2018년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중화연합보험회사의 경영권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양도함
 - 2007년 중화보험그룹은 64억 위안의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빠졌으며, 2009~2012년 보험보장기금은 60억 위안으로 중화보험그룹 지분의 91.5%를 취득함
 - 2012~2018년 보험보장기금은 84억 위안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중화연합보험회사의 지분 전액을 중국동방자산관리회사, 요녕성대회사, 중국중차그룹, 부방생명보험회사에 매각함
- 2018년 보험보장기금은 경영난에 빠진 안방보험그룹의 경영권을 취득했으며 2020년에 안방보험그룹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하는 다가보험그룹을 설립함
 - 2017년 안방보험그룹은 당시 회장인 우샤오후이의 경제범죄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으며, 2018년 보험보장기금은 608억 위안을 출자해 안방보험그룹의 경영권을 취득함
 - 명목상 608억 위안을 기록했던 안방보험그룹의 등록자본금은 대주주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순환출자와 허위 증자로 11억 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됨
 - 2020년에 신설된 다가보험그룹은 안방보험그룹이 보유한 안방생명보험회사, 안방손해보험회사, 안방연금보험회사, 안방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를 인수함
 - 보험보장기금은 다가보험그룹을 설립하고 나서 안방보험그룹을 해산함
 - 현재 보험보장기금은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다가보험그룹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음
 - 징둥, 샤문금원 등 6개 회사는 다가보험그룹 지분 인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보험정보 공시제도

가. 보험회사

○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사 정보, 상품 정보 및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함⁴⁷⁾

- 회사 정보는 회사 개황 및 지배구조 개요가 있으며, 상품 정보는 심사나 등록 보험상품의 목록과 약관, 신형 생명보험상품인 경우 상품 설명서까지 포함
 - 회사 개황은 회사명칭, 등록자본금, 본사 소재지와 영업장소, 설립 시기, 영업 범위와 지역, 법정대표, 콜센터 전화번호, 민원 제기방법과 처리절차, 지사기구의 영업장소와 연락처를 포함함
 - 지배구조 개요는 실제 지배인, 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최근 3년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와 감사 이력, 고급관리자의 약력, 직책과 이행 상황, 회사부서 구성 상황이 있음
- 경영정보는 재무현황, 책임준비금, 위험관리 상황, 보험상품 판매현황, 지급여력 현황, 중대 관련 거래, 중대 변동사항을 포함함
 - 지급여력 현황, 중대 관련 거래, 중대 변동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단독적으로 공개되며, 나머지 경영정보는 연간 경영보고서에서 공개됨

○ 온라인보험, 건강보험과 건강관리서비스,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추가 공시하여야 함⁴⁸⁾

- 온라인보험 관련 정보는 보험상품 정보(약관, 요율), 판매채널 정보(협력회사의 명칭, 사이트, 업무 범위), 고객센터 및 민원 처리방법을 포함함
- 건강보험과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상품 정보(약관, 요율, 가입 설명서 등), 건강관리 관련 설명이 있음
-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은 연금상품 정보, 고객센터 정보 등이 있음

4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0)

4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타 보험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고객 백서, 보험 상식 등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나. 보험협회 및 감독당국

- 중국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상품 정보와 경영정보, 자동차강제보험 정보, 비보험자회사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다만 보험협회가 공시한 상품 정보와 경영정보는 회사별로 단순 나열되고 있음
- 중국 감독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산업 관련 통계데이터, 보험회사의 소비자민원, 지급여력 상황을 포함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하고 있음
 - 보험산업 관련 통계데이터는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통계데이터만 있으며 회사별 및 세부 종목별 통계데이터가 없음
 -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통계데이터는 월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지, 건수 등이 있음
 - 보험회사의 소비자민원은 보험업권별 민원 건수, 상위 보험회사의 민원 건수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며, 지급여력 상황은 회사별 지급여력비율과 등급을 포함함

〈표 VI-3〉 보험정보 공시내용

구분	세부 내용
보험회사	• 기본 공시 정보 - 회사 정보: 회사 개황(회사명칭, 등록자본금, 본사 소재지와 영업장소, 설립시기, 영업 범위와 지역, 법정대표, 콜센터 전화번호, 민원 제기방법과 처리절차, 지사기구의 영업 장소와 연락처) 및 지배구조 개요(실제 지배인, 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최근 3년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와 감사 이력, 고금관리자의 약력, 직책과 이행 상황, 회사부서 구성 상황) - 경영정보: 재무현황, 책임준비금, 위험관리 상황, 보험상품 판매현황, 지급여력 상황, 중대 관련 거래, 중대 변동 사항 • 추가 공시 정보(관련 보험업무 영위 시) - 온라인보험 관련 정보는 보험상품 정보(약관, 요율), 판매채널 정보(기관 명칭, 사이트, 업무 범위), 고객센터 서비스 및 민원 처리방법을 포함 - 건강보험과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상품 정보(약관, 요율, 가입 설명 등), 건강관리 설명서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은 상품 정보, 고객센터 서비스 정보 등을 포함 • 자발 공시 정보 - 고객 백서, 보험 상식 등을 포함
보험협회	상품 정보와 경영정보, 자동차강제보험 정보, 비보험자회사 정보
감독당국	보험산업 관련 통계데이터, 보험회사의 소비자민원, 지급여력 상황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⁴⁹⁾

가. 민원처리

○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 및 민원처리의 책임 주체이므로 보험소비자의 민원처리를 직접 수행해야 함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보험소비자민원처리를 감독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민원처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에서 받은 민원이 있으면 해당 보험회사에 전달할 것임

49)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 보험회사는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민원 제기방법과 처리절차 명시, 제3자 협력회사의 소비자민원에 대한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함

-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보험회사는 민원처리 전담부서에 합리적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위관리자나 부서책임자가 민원처리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보험회사는 영업장소에서 접대장소, 보험소비자 접대 과정을 기록하는 녹음과 녹화 장비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민원 제기방법 명시: 보험회사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장소에서 전화번호, 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이트와 같은 민원 제기방법을 공개해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에서도 전화번호나 기타 민원 제기방법을 기재해야 함
- 민원 처리절차 명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민원 처리절차를 공개해야 함
 - 민원 처리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의 민원 제기, 민원 접수, 조사와 확인, 처리의견 형성, 고객에 대한 회답, 민원안건 종료의 순으로 되어 있음
- 제3자 협력회사의 소비자민원에 대한 관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협력회사로 인한 소비자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회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협력회사를 선택할 때 협력회사의 협조 정도를 자격조건에 포함시켜야 됨

○ 보험회사는 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위해 회피제도를 구축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해야 함

- 회피제도: 보험회사는 민원처리 직원을 배치할 때 해당 소비자민원 관련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을 선택해야 함
- 처리기간: 보험회사는 사실이 명확하고 분쟁이 간단한 민원에 대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복잡한 민원에 대해 30일 이내, 아주 복잡하거나 특수 상황이 있는 민원에 대해 60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아주 복잡하거나 특수 상황이 있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면 고급 관리자는 동의하고 나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함

나. 분쟁조정

○ 보험회사나 보험소비자는 모두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민원처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직접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⁵⁰⁾을 거쳐서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도 있음
 - 법원이 배치한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서 분쟁조정을 받은 보험소비자는 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분쟁조정 진도를 조회할 수 있음
- 2020년 이전에 각 지역에 있는 보험협회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2020년 이후 각 지역에서 신설된 보험업인민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감독당국인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부터 각 지역에서 보험협회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보험업인민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보험업인민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는 보험협회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의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음

4. 감독당국의 최근 정보

가. 고령 보험소비자의 디지털 소외문제 해소⁵¹⁾

○ 2021년 3월 중국 감독당국은 고령 보험소비자의 디지털 소외문제 해소를 위해 전통 서비스 방식 제공,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교육과 홍보 강화를 요구함

50) 중국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재판기관)은 분쟁조정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에서 받은 분쟁조정 안건을 보험업 분쟁조정조직에 전달할 수 있음

5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 전통 서비스 방식 제공: 보험회사는 고령자 거주 상황 및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영업점포 제공, 현장직원 유지, 서비스절차 간소화, 고령자의 소비습관 존중(종이통장 제공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
-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보험회사는 고령자 습관을 고려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절차를 개선해야 함
-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보험회사는 고령자 친화적 홈페이지,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야 하며 몸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교육과 홍보 강화: 보험회사는 서비스 제공 직원에게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이나 안내자료를 제작해야 함

나. 새로운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방법 발표⁵²⁾

○ 2021년 7월 중국 감독당국은 새로운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방법을 발표함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며 소비자보호 문제가 있는 보험회사를 처벌할 수 있음
- 새로운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은 보험회사의 5가지 분야(지배구조와 부서 배치, 제도와 운영상황, 수행 상황과 서비스, 소비자 교육과 홍보, 민원 건수와 해결 결과)으로 제한됨
 - 지배구조와 부서배치, 소비자 교육과 홍보의 배점 비중은 각각 10%이며, 민원 건수와 해결 결과의 배점 비중은 25%임
 - 제도와 운영상황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내부교육, 내부 심사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배점 비중은 25%임
 - 수행 상황과 서비스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홍보, 판매행위 관리, 협력회사에 관한 관리, 서비스 품질, 수수료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배점 비중은 30%임
- 새로운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1~4등급으로 구분되며, 3등급과 4등급을 평가받은 보험회사는 90일 이내에 소비자보호 문제를 개선하여야 하고 감독당국에 개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실태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은 75~89점, 3등급은 60~74

5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점, 4등급은 60점 이하임

-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3~4등급을 평가받은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3등급을 평가받은 보험회사는 경고장, 평가결과 공개, 기한 내 시정 명령, 회사 내부 관련 직원의 문책 등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4등급을 평가받은 보험회사는 시한 내에 소비자보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신규 보험업무 경영과 지사기구 설립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다만 중국 감독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소비자 보호 평가실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소비자보호 문제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만을 공개했음

- 2021년 8월 감독당국은 온라인플랫폼의 허위 보험정보 홍보, 허위 보고서, 서류의 제출과 제공을 이유로 중안온라인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회사 내부 직원의 문책, 벌금 부과 등과 같은 처벌 조치를 했음⁵³⁾

다.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⁵⁴⁾

○ 2021년 8월 중국 감독당국은 온라인보험 민원 급증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실시함

- 온라인보험 관련 민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63.1%, 2018년 121.0%, 2019년 88.6%로 매우 높은 상승폭을 유지함
- 이번의 단속대상은 온라인보험 사업자의 부정한 영업행위, 불법 또는 부정 경영, 고객 정보 보호 등을 포함함
 - 부정한 영업행위는 보험상품 관련 사실 은폐행위, 불충분한 설명, 불고지 행위, 끼워 팔기, 유도 판매 등의 행위가 있음
 - 불법 또는 부정 경영 문제는 사업비 과도 책정, 부당한 보험료 책정, 사후서비스 품질 문제 등이 있으며, 고객 정보 보호 문제는 고객 정보 수집 및 보호 문제 등이 있음

53)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54)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 중국 감독당국은 최근 급증한 온라인보험 민원 유형을 반영해 과거에 합리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이던 아래와 같은 영업행위를 이번 단속에서 부정한 영업행위로 규정했음

- ‘첫 달 보험료 무료’, ‘첫 달 보험료 차감 혜택 제공’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해 전체 납입보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무료 가입’, ‘무료 제공’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해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 시 보험료를 수취하는 행위, ‘한량 판매’, ‘한시 판매’, ‘한시 혜택’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절판마케팅 행위
- ‘공유 시 선물 증정’, ‘보너스 지급’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계약에 없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기술 서비스 비용’, ‘마케팅 홍보 비용’, ‘교육비’ 등과 같은 명의로 온라인보험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 부당한 홈페이지 구조로 ‘자동 갱신’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갱신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자 ‘자동 갱신’을 간편하게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가. 급증하는 보험민원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20년 4/4분기를 제외하고 최근 1년간 보험민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2/4분기 보험민원 건수는 4만 7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민원 건수는 각각 약 2만 건, 2만 7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 21.3% 증가함
- 한편, 보험보장기금회사가 발표한 ‘보험소비자신뢰지수’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만족 비율은 69.7%로 전년 대비 6.0% 하락했음⁵⁵⁾

55) 保险保障基金公司(2021)

〈표 VI-4〉 보험민원 건수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20년 2/4분기	2020년 3/4분기	2020년 4/4분기	2021년 1/4분기	2021년 2/4분기
생명 보험회사	건수	17,532	19,859	14,695	22,353	27,362
	증가율	46.0	13.3	-26.0	52.1	22.4
손해 보험회사	건수	16,200	16,895	11,993	15,539	19,643
	증가율	11.1	4.3	-29.0	29.6	26.4
합계	건수	33,732	36,754	26,688	37,892	47,005
	증가율	26.9	9.0	-27.4	42.0	24.0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나. 보험정보 공시의 문제점

○ 2018년 183개 중국 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의 보험정보 공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정보 미공시, 불충실한 정보공시, 정보공시 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보험회사 수는 56개사로 전체 보험회사에서 21%를 차지함⁵⁶⁾

- 보험정보 미공시(9개사): 보험정보 미공시는 회사 홈페이지가 없거나 열리지 않은 것을 포함함
- 불충실한 정보공시(44개사): 불충실한 정보공시는 정보공시 페이지의 카테고리 분류 이상, 정보공시 페이지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없는 상황, 정보공시 단독 페이지가 없는 상황, 정보공시 페이지에 부분적인 또는 모든 보험정보가 없는 상황을 포함함
- 정보공시 지연(3개사): 정보공시 지연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미함

56) 郝璉 외(2019)

〈표 VI-5〉 보험회사의 정보공시 문제점

구분	세부 유형	회사 수	비중
정상적인 정보공시	정상적인 정보공시	127	69.4%
보험정보 미공시	회사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	8	4.4%
	회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음	1	0.6%
불충실한 정보공시	정보공시 페이지의 카테고리 분류 이상	28	15.3%
	정보공시 페이지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없는 상황	6	3.3%
	정보공시 단독 페이지가 없는 상황	5	2.7%
	정보공시 페이지에 부분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	4	2.2%
	정보공시 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없는 상황	1	0.6%
정보공시 지연	정해진 시간 내에 보험정보 미공시	3	1.6%

자료: 郝臣 외(2019)

○ 중국 보험협회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적인 보험정보만을 공시하고 있음

-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시한 상품 정보 및 경영정보를 단순 나열하고 있으며 회사, 상품, 채널의 비교공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게시 페이지는 열리지 않는 상황도 존재함
- 감독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통계데이터만을 공시하고 회사별 및 세부 종목별 통계데이터, 보험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과 같은 보험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이 공시한 통계데이터는 월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지, 건수, 분기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등급임

다. 계약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 현행 보험보장기금의 보험요율, 보상금액, 사용조건은 계약자 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⁵⁷⁾

57) 孙宏涛(2019)

- 보험요율: 회사별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 규모만을 고려하는 현행 고정요율제도는 일부 보험회사의 무리한 경영활동을 막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8년 안방보험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부실화되었음
- 보상금액: 보험계약자 손실에 대한 보상 비율은 설정되었지만, 보상한도가 없는 것은 보험보장기금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의 은행 예금자 보상한도는 2015년부터 1인당, 은행당 50만 위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보험계약자 보상한도는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음
- 사용조건: 부실 보험회사 처리에 보험보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서 보험보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불투명한 문제가 존재함
 - 부실 보험회사 처리에 보험보장기금을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은 명확한 사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음

1. 중국 사업 현황

가. 수입보험료

-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016년 1,577억 위안에서 2020년 3,524억 위안으로 증가함
 -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6년 1,388억 위안, 189억 위안에서 3,177억 위안, 348억 위안으로 상승함
- 외자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5.09%에서 2020년 7.79%로 상승했으나 외자보험회사의 개수(50개)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낮은 편임
 -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돌파했으나 외자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대에 불과함
 - 2016년(5.09%)과 비교할 때 2020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63%p, 0.52%p 상승함
 - 다만 많은 외자보험회사들이 영업허가를 받은 베이징 및 상하이의 외자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각각 20.38%, 19.34%로 높은 편임

〈표 VII-1〉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억 위안, %,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명 보험 회사	보험료	1,388	1,934	2,127	2,805	3,177
	점유율	6.40	7.43	8.10	9.47	10.03
	회사	27	27	27	28	28
손해 보험 회사	보험료	189	206	228	253	348
	점유율	2.04	1.96	1.94	1.94	2.56
	회사	22	22	22	22	22
합계	보험료	1,577	2,140	2,355	3,058	3,524
	점유율	5.09	5.85	6.19	7.17	7.79
	회사	49	49	49	50	50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나. 순이익

- 2019년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015년 55억 위안에서 206억 위안으로 증가함
 -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은 2015년 60억 위안에서 196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외자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은 적자(-5억 위안)에서 흑자(10억 위안)로 전환됨
-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 비중은 2015년 2.9%에서 2019년 7.1%로 상승했으나 외자보험 회사 개수(50개)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작은 편임
 - 2019년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순이익 비중은 8.4%를 기록했으나 외자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 비중은 1%대에 그쳤음

〈표 VII-2〉 외자보험회사의 순이익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회사	순이익	60	21	88	120	196
	비중	4.8	2.7	7.6	8.6	8.4
손해보험 회사	순이익	-5	-0	-1	9	10
	비중	-	-	-	2.7	1.6
합계	순이익	55	21	87	129	206
	비중	2.9	1.6	5.6	7.5	7.1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면 2015~2019년 대부분 외자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외자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흑자 외자생명보험회사는 15개사에서 21개사로 증가했으며 흑자 외자손해보험회사는 11개사에서 18개사로 증가함

〈표 VII-3〉 흑자 외자보험회사 개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명보험 회사	흑자	15	15	18	18	21
	적자	12	12	9	9	7
손해보험 회사	흑자	11	12	12	15	18
	적자	11	10	10	7	4
합계	흑자	26	27	30	33	39
	적자	23	22	19	16	11

자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6~2020)

다. 저성장 원인

- 중자보험회사들과 비교할 때 외자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순이익 낮은 이유는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영업지역 제한, 낮은 회사 인지도 등이 있음⁵⁸⁾

58) 德勤(2020); 金融时报(2018)

- 2016~2020년 중자보험회사는 104개사에서 129개사로 25개사가 증가했지만, 외자보험회사는 49개사에서 50개사로 1개사만이 증가함
 - 중자보험회사와 달리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보험회사는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중국 내 대표처 2년 이상의 운영경력을 포함한 영업허가 제한조치를 받음
 -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지역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지역 확장에 있어서 중자보험회사들에 비해 외자보험회사들이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움
 - 예를 들어 외자보험회사가 처벌을 받은 사업연도에 신규 영업지역에 대해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 외국 보험회사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회사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회사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중국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음
 - 이는 외국 보험회사에 비해 중국 보험회사의 중국 주주가 대국민 이미지가 좋고 회사 인지도가 높기 때문임
- 다만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외자보험회사의 저성장 원인인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및 영업지역 제한 문제가 해소되었음
- 제2장에서 언급됐듯이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CHUBB, AXA, HSBC, Standard Life, Allianz, AIA, ERCO는 중국 사업을 확대했거나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중국 보험시장 전면 개방이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2. 성공사례

- 본 절에서 일부 외자보험회사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는 합자 또는 독자 법인을

통해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직접 영위하고 있음

- DB손보는 중국 보험회사인 안성손해보험회사 지분의 15.1%를 보유하고 있음

○ 외자보험회사 중 AIA생명보험회사, CIGNA-CMB생명보험회사, 국태손해보험회사를 성공 사례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AIA생명보험회사는 독자 외자생명보험회사이고 CIGNA-CMB생명보험회사는 중외합자 생명보험회사이므로 중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확대하려는 외자보험회사에게 2가지 사업 확대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손해보험회사에서 중외합자손해보험회사로 전환된 외자보험회사이므로 중국에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내는 외자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사업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음

가. AIA생명보험회사

1) 영업실적

○ 1992년 AIA는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2020년 AIA의 수입보험료가 161억 위안에서 398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2%까지 상승함
- 2020년 시장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지만 AIA의 순이익은 73억 위안으로 2016년 5억 위안에 비해 68억 위안이나 증가함

〈표 VII-4〉 AIA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16,115	20,760	26,134	34,134	39,798	25.4
시장점유율	0.7	0.8	1.0	1.1	1.2	-
순이익	517	1,990	4,344	8,169	7,319	94.0

자료: AIA생명보험회사, 『경영보고서』

2) 성장 과정

- 1992년 AIA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사를 설립했으며 2002년까지 7개 지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함
 -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을 영업했던 AIA는 1992년에 중국 감독당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최초의 외국 보험회사로 상하이에서 지사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함
 - 중국에서 보험을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며, AIA는 2002년까지 광저우, 선전, 베이징, 장쑤, 둥관 및 장먼에서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았음
-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독자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며, 6월 AIA는 최초의 외국 보험회사로 독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함
 -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 중국 보험회사들과 같은 감독을 받을 수 있으므로 AIA는 회사 형태를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함
 - AIA는 2021년 4월에 쓰촨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6월에 후베이에서 영업 예비허가를 받았음
- 2020년 6월 AIA는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추진함
 - 시장점유율 및 성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우체국보험회사와 유사한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AIA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분투자 대상임
 - 2020년 총수입보험료 기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중국 생명보험시장 10위권에 진입했으며, 2016~2020년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생명보험시장 평균 성장률(17.6%)보다 11.4%p 높은 29.0%를 기록함
 - 중국 감독당국이 AIA의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투자를 승인할 경우 AIA는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9%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될 것임

3) 성공 요인

- 2002년 이후 중국에서 영업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AIA는 중재보험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과 채널 전략을 추진함

- 2002년까지 7개 지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함
- 저축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증자보험회사들과 달리 AIA는 중대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며 고객 필요에 따라 저축성보험, 의료서비스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총수입보험료가 AIA의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약 25%에서 2019년 약 60%까지 상승함
- 중국에서 최초로 설계사채널을 도입한 AIA는 설계사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증자보험회사들과 달리 설계사의 작은 이동으로 발생한 불안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설계사의 질적 성장 강화를 시작함
 - 2010년 AIA는 마스터 플래너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마스터 플래너 가운데 백만 달러 원탁회의(MDRT)를 달성하는 설계사 수는 2011년 163명에서 2019년 2,577명까지 증가함
 - AIA의 설계사 수는 설계사 질적 성장 전략으로 2010년 2.4만 명에서 2013년 1.5만 명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 2019년 4.4만 명까지 회복됨
 - 2010년부터 총수입보험료 기준 설계사채널의 판매 비중은 계속 90% 이상을 유지함

○ AIA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2020년 이후 방카슈랑스 채널 및 양로서비스 강화에도 나섬

- 2021년 6월 AIA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에 도움이 됨
 - 2010년 AIA는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를 위해 중국공상은행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총수입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1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모회사인 중국우정그룹은 4만 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는 우체국과 은행 자회사를 갖고 있으므로 AIA는 중국우정그룹과 사업협력을 하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2021년 7월 AIA는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노후소득 준비, 건강위험보장 및 양로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양로서비스를 출시함
 - AIA는 노후소득준비와 건강위험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보험, 종신보험 및 의료보험 등 신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고객은 필요한 보장에 따라 이들 보험상품

을 골라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양로서비스 사업자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건강관리인력을 활용
용해 퇴직 전부터 퇴직 후까지 고객 맞춤형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로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를 대상으로 복단대학교와 ‘노후설계사’ 프로
그램을 개설함

- 한편, 보험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험집사서비스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앱에
서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나만의 양로 플랜’을 출시해 맞춤형 양로정보를 제공함

○ AIA는 중국에서 회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베이징에서 유소년 축구 꿈나무 이벤트를 지원하고, 신장에서 어려운 서민에게 무
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하이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자선신탁을 출범함

나. CIGNA-CMB생명보험회사

1) 영업실적

○ 2003년 미국 CIGNA는 중국 CMC(심천정존투자회사)와 합자법인 CIGNA-CMC Life를
설립했으며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CMC가 소유 지분 전액을 CMB(초상은행)에 양도하면서 CIGNA-CMC Life
의 명칭은 CIGNA-CMB Life로 변경됨
- 2016~2020년 CIGNA-CMB의 수입보험료가 120억 위안에서 197억 위안으로 증가
했으며,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0.6%를 유지함
-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2020년 CIGNA-CMB의 순이익은 16억 위
안으로 2016년(2억 위안)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함

〈표 VII-5〉 CIGNA-CMB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11,986	12,814	15,062	18,004	19,661	13.2
시장점유율	0.5	0.5	0.6	0.6	0.6	-
순이익	221	667	1,044	1,379	1,630	64.8

자료: CIGNA-CMB생명보험회사, 『경영보고서』

2) 성장 과정

○ 2003년 CIGNA-CMB는 중국 선전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18개 지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함

- CIGNA-CMB는 보험사업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영업지역을 선전에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후베이, 장쑤, 저장, 쓰촨, 산둥, 광둥, 량오닝, 쑤시, 후난, 허난, 장시, 푸젠, 안후이, 윈난까지 확대함

○ 2017년과 2020년에 CIGNA-CMB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자산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각각 건강관리 및 자산관리 관련 자회사를 설립함

- CIGNA-CMB는 보험판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모두 중요시하는 보험회사이며, 건강서비스 고객을 비보험고객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강관리자회사를 설립함
 - 중국의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자회사를 통해 자사 보험고객 및 제3자 비보험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9년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보험자산관리회사 소유를 허용했으며, CIGNA-CMB는 자사 자산운용 능력 강화 및 자산관리사업 진출을 위해 자산관리자회사를 설립함
 - CIGNA-CMB의 자산관리자회사는 모회사인 CIGNA-CMB 및 제3자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성공 요인

○ CIGNA-CMB는 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 및 중국 주주의 은행 점포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상품과 채널 전략을 수립함

- CIGNA-CMB는 미국 주주인 CIGNA의 TM채널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TM채널을 핵심 판매채널로 도입했으며 중국 주주인 CMB의 은행 접점이 많은 장점을 이용해 방카슈랑스채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함
 - 또한 CIGNA-CMB는 기업 고객에게 단체 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중개인 채널을 이용하고 MZ세대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CM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중자보험회사들과 달리 CIGNA-CMB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CIGNA-CMB는 고객 가족의 보험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패키지화하여 판매하고 다른 중국 보험회사보다 신상품 판매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음
- 한편, CIGNA-CMB는 중국 주주(CMC, CMB)의 모회사인 CMG(초상국그룹)의 고객자원을 이용해 잠재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CMG(초상국그룹)는 금융, 교통 운송,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국유지주회사임

○ CIGNA-CMB는 회사 브랜드 인지도 및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보험산업 조사연구 후원사업, 보험산업 관련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함

- CIGNA-CMB는 중국청소년기금, 애우자선기금과 빈곤지역에 도서관, 교실을 기부하며 중국 보험협회의 온라인보험 조사연구를 후원하고 상하이 푸단대학교와 헬스케어산업포럼을 주최했음
 - 또한 CIGNA-CMB는 중국에 인기가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Weibo)와 웨신(Wechat)을 통해 회사 인지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CIGNA-CMB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중국 언론인 '21세기 경제보도'가 실시하는 '아시아보험회사 경쟁력 평가'에서 8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보험전문지인 '중국은행보험보'가 실시하는 금융브랜드 영향력 평가에서 수상함

다. 국태손해보험회사(Cathay Insurance)

1) 영업실적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대만 국태보험지주회사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됐으며 2016년에 엔트파이낸셜에 인수되면서 그 이후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대만 국태보험지주회사는 2008년에 독자 손해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를 설립했으나 2016년에 자본 확충을 위해 경영권을 엔트파이낸셜에게 양도함
 - 알라바라의 관계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은 8억 위안에 국태손해보험회사 지분의 51%를 취득했으며,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보험회사에서 증외합자보험회사로 전환됨
 - 2016~2020년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7억 위안에서 60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서 0.5%로 상승함
 -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020년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6천만 위안에서 플러스 6천만 위안으로 전환됨
 - 이는 국태손해보험회사가 새 대주주인 엔트파이낸셜의 지원을 받아서 경영권 양도 후 4년 만에 영업흑자를 취득한 것임

〈표 VII-6〉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영업실적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입보험료	651	1,303	3,849	4,824	6,033	74.5
시장점유율	0.1	0.1	0.4	0.4	0.5	-
순이익	-162	-92	-50	5	62	-

자료: 국태손해보험회사, 『경영보고서』

2) 성장 과정

- 2008년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자 중국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11개 지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함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2008년부터 영업지역을 상하이에서 베이징, 산둥, 칭다오, 장쑤, 저장, 쓰촨, 후베이, 푸젠, 샤먼, 광둥까지 확대함
- 그러나 2016년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낸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부족으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성장을 추진했으나 자동차보험업무의 지속적인 적자로 전체 영업순익이 2009년 1천 983만 위안에서 1억 6천 188만 위안으로 확대됨
 - 2016년 2/4분기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감독당국이 권고한 적정 수준인 100%보다 낮은 38.9%로 떨어졌으며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지급여력비율이 권고 수준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모집을 할 수 없음
- 2016년 앤트파이낸셜은 8억 위안에 국태손해보험회사 지분의 51%를 취득했으며,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독자 외자보험회사에서 중외합자보험회사로 전환됨

3) 성공 요인

- 앤트파이낸셜은 핀테크사업 종사자를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CEO로 선임했으며, 이에 따라 국태손해보험회사는 2016년부터 상품과 채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국태손해보험회사 CEO는 중국국제금융투자회사, 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 출신의 핀테크 전문가이며, 3명 상임이사 중 2명은 앤트파이낸셜 출신의 핀테크 전문가임
 - 과거에 자동차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판매를 축소하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험, 단기건강보험, 상해보험, 소포반송보험 판매를 확대함
 - 국태손해보험회사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이용자는 간편결제서비스 앱인 알리페이를 쓰고 있어 금융계좌손해배상보험과 같은 보험 수요가 큼
 - 또한 국태손해보험회사는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알리페이를 보유하는 장점을 이용해 알리페이를 핵심 온라인 판매채널로 도입함
 - 2020년 기준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온라인채널 보험판매 급증으로 전체 온라인채널 손해보험시장에서 5위(6.9%)를 차지함

- 과거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국태손해보험회사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보험사업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음
- 2019년과 2020년에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언론인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하는 보험회사 평가에서 각각 ‘우수 인슈어테크회사’, ‘우수 보험회사’를 수상함

3. 시사점

- AIA,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볼 때 중국 보험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영업지역,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있어서 차별적인 성장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영업지역: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경영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산둥 등 지역을 중점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해 보험 수요가 높은 잠재 고객에게 최대한 접근할 수 있음
- 보험상품: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 및 중국 주주의 고객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 보험회사들과 다른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함
 - AIA는 선진시장에서 쌓인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대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CIGNA-CMB는 미국 주주인 CIGNA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 및 단기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배주주 변경 후 중국 주주인 엔트파이낸셜의 고객 자원을 이용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험과 단기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함
- 판매채널: 상기 외자보험회사들은 외국 주주의 경영 노하우나 중국 주주의 영업점포나 온라인플랫폼을 바탕으로 목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구축함
 - AIA는 설명이 필요한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설계사채널을 핵심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보험고객 확보를 위해 방카슈랑스채널을 강화함
 - CIGNA-CMB는 건강보험 판매를 위한 CM채널,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 판매를 위한 방카슈랑스채널, 단기건강보험 판매를 위한 보험중개인채널을 구축함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엔트파이낸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알리페이를 핵심 온라인채널로 활용함

○ 또한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볼 때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신뢰가 있거나 시장 영향력이 있는 비보험권 회사와의 합작도 중요한 요인임

- 감독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시장 영향력이 높고 대국민 이미지가 양호한 중국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함으로써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잠재 고객 확보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CIGNA-CMB는 중국 주주인 CMC가 중국 감독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합작회사보다 신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을 수 있었음

-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온라인플랫폼과 고객 자원을 이용해 금융계좌손해배상책임보험, 단기건강보험, 상해보험, 소포반송보험 판매를 확대함

- 2020년 3월과 2021년 5월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각각 중국 IT회사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중국 독자법인을 중외합자법인을 전환함

- 다만 현대해상은 현대해상 중국법인에서 지분 32%를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중국법인에서 지분 37%를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함

○ AIA,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사례 검토를 통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내 보험회사의 판매유통에서 최대 강점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채널과 같은 모집조직 양성 및 관리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으로 기존의 방카슈랑스채널 독점 시대에서 방카슈랑스채널과 보험설계사채널로 양분되는 시대로 진입했으며, AIA는 보험설계사채널에 대한 활용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함

- 국내 보험회사는 판매유통에 강점이 있지만 MZ세대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적절한 CM채널 구축이 필요함

- 둘째, 동일 동양 문화권 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해 중국인의 보험 수요에 부합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 AIA, CIGNA-CMB는 중국 보험회사들과 달리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보험에서의 성장을 초래함
-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경영우위를 가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사업 축소를 추진한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수요를 겨냥해 온라인보험시장에서 성장을 이뤘음
- 한국의 경우 같은 동양 문화권 국가로 선진시장의 보험상품을 동양 문화권에서 재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국내 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회사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한국보다 더 긴장된 상황으로 나타나지만, 대만계 손해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주주인 엔트파이낸셜의 영향력을 이용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음
 -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부터 악화된 한·중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내 보험회사도 중국 주주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보험시장은 시장 규모 및 성장 속도 측면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해외시장임
 -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가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함
 - 2019년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각각 3조 995억 위안, 1조 1,649억 위안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72.7%, 27.3%를 차지함
-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에서 독자법인이나 합자법인의 형태를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1979~1992년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 이전에 중국인민보험공사 등 4개 중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을 장악함
 - 중국 정부는 1992~2001년에 개별 도시의 보험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2001~2017년에 영업 제한조치를 보류하면서 전국 보험시장을 개방했으며, 2018년에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함
 - 중국 보험산업은 대외개방으로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에 따라 상승함
-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서 진행했음
 - 2000년대 요율 자유화 이전까지 중국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요율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동일한 요율을 사용했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상해보험 및 단기건강보험, 보통형 인보험, 유배당 보험, 유니버설보험의 순서대로 추진됐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1단계(2001~2006년), 2단계(2006~2014년), 3단계(2015년~현재)의 순서대로 진행됨
 - 다만 중국에서 요율 자유화는 진행됐지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

되지 않았음

- 인보험의 요율 자유화는 진행되었지만,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됨
-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는 제도개혁에 따라 추진됐지만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여전히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됨

○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임

- 보험설계사채널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생산성 하락 및 인력 이탈 문제가 발생함
-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음

- 2020년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9조 3,314억 위안에서 21조 6,801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나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중국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보다 더 낮음

○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임

- 감독당국은 계약자 보호제도, 보험정보 공시제도,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를 구축했으며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섬
- 2018년 중국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 상황 조사에 따르면 보험정보 미공시, 불충실한 정보공시, 정보공시 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보험회사 수는 56개사로 전체 보험회사에서 21%를 차지함
- 2020년 4/4분기를 제외하고 최근 1년간 보험민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5~2019년 외자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자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자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 2015~2019년 외자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 미만 수준으로 외자보험회사 개수의 비중(28%, 2019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중자보험회사들과 비교할 때 외자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영업지역 제한, 낮은 회사 인지도 등이 있음
 - 다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자생명보험회사는 15개사에서 21개사로 상승했으며, 외자손해보험회사는 11개사에서 18개사로 증가함
-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 시점에 일부 외자보험회사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외자보험회사의 저성장 원인인 신규 외자보험회사 증가세 주춤 및 영업지역 제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 전면 개방으로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AIA, CIGNA-CMB,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볼 때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영업지역,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있어서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국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로 중국 사업 성공이 쉽지 않지만,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를 감안할 때 대만계 손해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성공요인은 국내 보험회사에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보험연구원(2020),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 확대 및 외국 보험회사의 기회」, 『해외보험 동향』, 2020년 가을호
- _____ (2020), 「중국 보험판매채널」, 『해외보험 동향』, 2020년 겨울호
- _____ (2021), 『중국 IT회사의 보험시장 진출 현황과 전망』
- 经济观察网(2020), “独立代理人制度落地你会选择单干吗?”
- 经济日报(2021), “保险业对外开放向纵深推进”
- 金融时报(2018), “外资保险公司水土不服仍待解”
- 大洋网(2001), “中国十大领域放宽外商投资限制”
- 德勤(2020), “开放政策下外资险企在中国的新机遇”
- 腾讯网(2019), “214年! 图说中国保险血泪史”
- 腾讯财经(2017), “万能险降幅近六成的背后: 下波颠覆行业洪流是谁”
- 零壹财经(2021), “3054家中国保险中介机构大全(2021年)”
- 李敏佳·张严文·陆政·曹夏天(2021), “中国保险业保险资金运用情况研究分析”
- 保险保障基金公司(2021), “2020年中国保险消费者信心指数报告”
- 保险中介(2013), “建国后的保险历史”
- 产业信息网(2021), “受新冠疫情及销售人员规模下降影响, 2020年中国寿险电销行业保费规模为136亿元, 同比下降22.51%”
- 新京报(2019), “千亿保单质押贷款稳稳的现金流?”
- 信息时报(2020), “车险综合费改9月19日实施, 对4S店盈利影响巨大!”
- 新华网(2019), “财险全覆盖监管车险意外险是监管重点”
- 任自力(2019), “中国保险费率监管制度的改革与思考”
- 前瞻产业研究院(2021), “2021年中国保险市场科技现状与发展趋势”
- 第一财经(2019), “银保监会明确保险公司相互代理规则”

- _____ (2020), “险资境外投资降至700亿美元, 权益类超四成、最爱投港股”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保险资金运用管理办法*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06), *健康保险管理办法*
- _____ (2008), *保险保障基金管理办法*
- _____ (2010), *保险公司信息披露管理办法*
- _____ (2012), “关于改革机动车辆保险条款费率管理办法有关问题的通知”
- _____ (2013), *保险公司业务范围分级管理办法*
- _____ (2014), *中国保监会关于加强和改进保险资金运用比例监管的通知*
- _____ (2015), *万能保险精算规定*
- _____ (2017), “中国保监会关于商业车险费率调整及管理等有关问题的通知”
- _____ (2018), “中国保监会关于调整部分地区商业车险自主定价范围的通知”
- _____ (2020a), “中国银保监会关于印发实施车险综合改革指导意见的通知”
- _____ (2020b), *关于规范保险公司健康管理服务的通知*
- _____ (2021a), *互联网保险业务监管办法*
- _____ (2021b), *专属商业养老保险业务方案*
- _____, *中国保险年鉴2016~2020*
- 中国保险报网(2018), “中国保险业改革开放40年大事记”
- 中国保险业协会(2016), “2015年寿险电话营销行业发展形势分析报告”
- _____ (2020), “2019年度寿险电话营销行业发展形势分析报告”
-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
-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0), “保监会关于进一步加强财产保险公司电话营销专用
产品管理的通”
- _____ (2013), “人身保险电话销售业务管理办法”
- _____ (2018), “中国保监会关于2017年度保险消费投诉情况的通知”
- _____ (2020a), *银行业保险业消费投诉处理管理办法*
- _____ (2020b), 关于优化保险公司权益类资产配置监管有关事项的通知
- _____ (2020c), “关于发展独立个人保险代理人有关事项的通知”

_____ (2021a), “关于银行保险机构切实解决老年人运用智能技术困难的
通知”

_____ (2021b), 「银行保险机构消费者权益保护监管评价办法」

_____ (2021c),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行政处罚决定书”

_____ (2021d), “关于开展互联网保险乱象专项整治工作的通知”

_____, 统计资料

中国证券报(2021), “去年基本养老保险基金投资收益率达10.95%”

中国人民保险集团年度报告(2015~2019)

中央政府门户网站(2013), “中国保监会宣布启动普通型人身保险费率改革”

_____ (2015), “中国保监会关于推进分红型人身保险费率政策改革有关事项的通知”

_____ (2020),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印发普通型人身保险精算规定的通知”

中银国际证券(2020), “《普通型人身保险精算规定》点评”

中银证券(2020), “车险综合改革正式落地”

陈辉(2020), “互联网保险慢慢来(电销2015-2019)”

_____(2021), 数说保险 | 2020年数据回购(产寿险)

澎湃新闻(2018), “新中国外资保险70年 金融服务业开放的独特样本”

郝臣·李艺华·李中南·崔光耀(2019), “我国保险公司信息披露及其优化研究”

A.M. BEST(2012), “BEST WEEK”

_____ (2021), “BEST’S REVIEW”

CB Insights(2020), “Quarterly InsurTech Briefing Q4 2019”

Equal Ocean(2020), “Insurtech in the US and China: Transformation in Waves”

Swiss Re, Sigma 2002~2020

大洋网(2001), “中国十大领域放宽外商投资限制”

(http://money.163.com/editor/010911/010911_60784.html)

保险中介(2013), “建国后的保险历史”

(<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fw/20130815/153016459818.shtml>)

腾讯财经(2017), “万能险降幅近六成的背后:下波颠覆行业洪流是谁”

(<https://finance.qq.com/a/20170703/018385.htm>)
中国保险报网(2018), “中国保险业改革开放40年大事记”
(http://www.sinoins.com/zt/2018-12/17/content_279054.htm)
澎湃新闻(2018), “新中国外资保险70年:金融服务业开放的独特样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81145)
金融时报(2018), “外资保险公司水土不服仍待解”
(https://www.financialnews.com.cn/bx/zc/201810/t20181017_147671.html)
腾讯网(2019), “214年!图说中国保险血泪史”
(<https://new.qq.com/omn/20190801/20190801A093PD00.html?pc>)
新华网(2019), “财险全覆盖监管车险意外险是监管重点”
(http://www.xinhuanet.com/money/2019-07/31/c_1210222540.htm)
第一财经(2019), “银保监会明确保险公司相互代理规则”
(<https://www.yicai.com/news/100334805.html>)
新京报(2019), “千亿保单质押贷款稳稳的现金流?”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9-06/05/c_1210151770.htm)
信息时报讯(2020), “车险综合改革9月19日实施,对4S店盈利影响巨大!”
(<https://new.qq.com/omn/20200904/20200904A0MHB000.html>)
经济观察网(2020), “独立代理人制度落地你会选择单干吗?”
(<http://www.eeo.com.cn/2020/1230/451590.shtml>)
第一财经(2020), “险资境外投资降至700亿美元,权益类超四成、最爱投港股”
(<https://www.yicai.com/news/100691144.html>)
经济日报(2021), “保险业对外开放向纵深推进”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4/01/c_1127281007.htm)
产业信息网(2021), “受新冠疫情及销售人员下降影响,2020年中国寿险电销行业保费规模为136亿元,同比下降22.51%”(https://www.chyxx.com/industry/202105/952767.html)
中国证券报(2021), “去年基本养老保险基金投资收益率达10.95%”
(https://jingji.cctv.com/2021/09/16/ARTIMZ527FtunAKQm5XuoNKs210916.shtml)
零壹财经(2021), “3054家中国保险中介机构大全(2021年)”
(https://www.163.com/dy/article/G23LS1A105198086.html)
中国保险行业协会, 信息披露, 保险公司年度信息披露
(http://icid.iachina.cn/?columnid_url=20151001000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统计资料
(https://www.cbirc.gov.cn/cn/view/pages/tongjishuju/tongjishuju.html)
中国保险保障基金公司(http://www.cisf.cn)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이슈보고서 2021-17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발 행 일 2021년 11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앤피

ISBN 979-11-89741-65-5
979-11-89741-37-2(세트)